

새 생애

해선물 · 다이아몬드게임말판

★ 64호 ★



아협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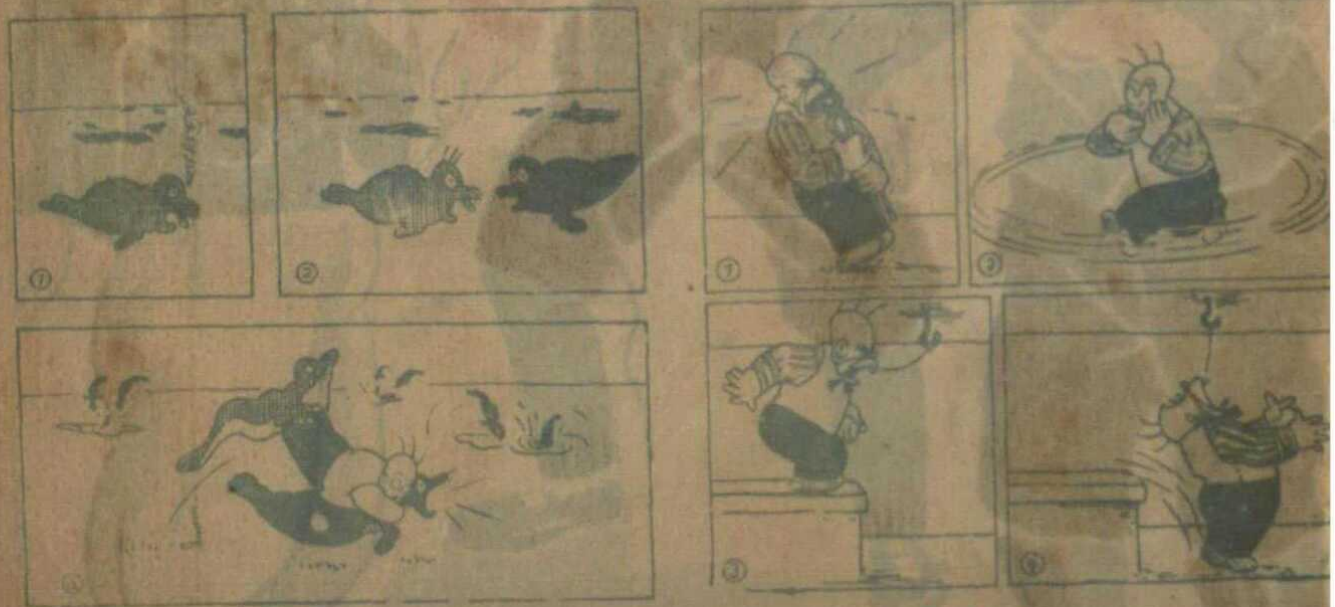
1

1.2월

보
 4283 3. '5
 5597
 5

산골의 봄

이 봄만 서다의 이 강물
 어떨까 봐서 물이 맑아
 새들은 봄엔 남쪽 언덕에서
 이 산물 한가서 살려만
 오



①이제 눈 따위도 안온다. ②물기
 놓았다. 조금만 더 자빠이 모거든.....
 ③에잇! 요놈아!

④집계로 잡아 내다. ⑤아이구 아파라.
 아이구구..... ⑥이래도 안빠질까. ⑦아아아!
 사담 살려다

소학생

4282년 1월 1일 발행

64 호 1.2 월치

차례

동요 • 작은 에델가.....유일영 (8)
동요 • 밤 길.....박은중 (17)
동요 • 노란뿔 하얀뿔.....윤일주 (46)

영화소설 • 옥동과 금시계.....(4)

소설 • 하얀 곡 배.....정민복 (12)
소설 • 소년 삼 곡 지.....박태원 (40)
그림 영화 • 피노키오.....작은돌 (30)
농부와 사과 나무.....(28)

★일본으로간우리의보물.....이흥희 (8)
★소년 피 락 사.....홍이섭 (26)
★우 두 이 야 기.....조무란 (24)
★동 요 맛 보 기.....박은중 (36)

○그림애기 • 상냥하는 소녀.....정 국 (20)
○애 약 보.....한영수 • 정은철 (2)
○발명의사공 (참수정).....(14)
○왕 중 학 교 표 기.....윤석중 (10)
○항 타 기 발 표.....(47)
○소 학 생 락 골.....(24)
○물 데 재웠을 때는.....(44)

주우의 여교 학생들
서울 방산 학교지.....(34)

연화 • 피 락 공 부.....정민복 (39)
연화 • 아달은 할아버지.....(2)
리아이몬드 게임 노는 법.....(49)
물방박사.....(37) ★리처 박사.....(48)
워털링 열매.....(23) ★의견 보기.....(49)
재미있는 빙판부.....(49) ★물감은 어떻게.....(18)
소 과 생 구 락 부.....(50)
연 락 고 나 서.....(50)

★ 그림 그리신 분 ★
정 김용 • 김 유환 • 김 기창
김 의환 • 조 병택 • 최 수업
정장 • 한 종택

새 해 머리 말

소



올해는 “소 해” 라고 합니다. 우리 한 번 소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소는 우선 고마운 동물입니다. 농사든지 주어 주고, 우를 낳아 주고, 그 밖에 쓴 갖 고된 일을 하면서 불평 한 마디 없이 주는 대로 먹으면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짐승입니다. 뭘이겠습니까? 소는 그 몸을 송두리채 바쳐서 우리들의 영양을 공급합니다. 살은 말할 것도 없고, 내장, 발, 꼬

리까지 먹지 않는 것 없습니다. 뭘이겠습니까? 그 가죽은 또 구두나 가방이나 락대나 하여 공업품으로 이용되고, 그 털 또한 옷감을 짜게 되고, 그 뿔도 여러 가지 공업품에 써주니 이런 고마운 데가 없습니다. 뭘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소는 일본 같은 외국에 팔려 가서 그 대신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가져 오게 합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그러면 큰 걱정이 생겼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는 소를 함부로 잡아 먹었기 때문에 소가 무척 줄은 일입니다. 아시다 싶이 소는 한번에 새끼를 하나씩 낳습니다. 어미 소 한 마리를 잡아먹으면 그 대신 새끼소 몇 마리를 남기어야 될 것인데, 이전 사뭇 어린 소를 잡는 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이래서는 농사에도 큰 피해 생길 뿐 아니라 고기도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으며, 국가 수입에도 적지 않은 손해가 될 것입니다. 하루 바삐 나라의 방침이 서서 소를 함부로 잡는 비릇이 없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
소설

목동과 금시계

클. 정 세 석

서울 영화 주식 회사

소학생 여러분은 누구나 국민 학교 국어 독본 하권에 “금시계”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실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효남이와 수득이라는 두 아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학교에도 못가고, 목장에서 짐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불행 속에서도, 항상 씩씩하고 정직하게 살아 나아간다는, 꼭 불쌍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번

에 서울영화사 (서울映畫社)에서는, 문교부 (文敎部)와 공동으로, “금시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목동과 금시계” (牧童과 金時計)라는 영화로 만들어, 여러분 소학생들에게, 골고루 보여드리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화를 보시기 전에, 우선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미리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요한 어느 시골 목장이었다. 동쪽 하늘이 흰히 떠올라, 무한히 넓고 푸른 목장에 아침 햇살이 비치자, 효남이는 외양간에서 젓 짜는 일룩소들을 풀밭으로 몰아내며, 아득히 먼 신작로를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수득이가 점점푸레미를 들고 빠른 걸음으로 목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어-수득아...인제 오니?”

“어-효남아...벌써 갠니?”

두 아이들은 얼굴에 쾌활한 웃음을 머우며 서로서르 반갑게

손을 들어 보였다.

효남과 수득이는 꼭 같은 열한살로, 남들 같으면 아침마다 책보 끼고 학교에 갈 나이건만, 그들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짐부름꾼 노릇을 하고 있었다. 효남이는 부모도 돌아가시고 집도 없어서, 목장 머슴방에서 살았고, 수득이는 새벽같이 목장에 와서 온종일 짐부름을 하다가 어두울 무렵이면 어머니와 누이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오막살이로 돌아간다.

그들은 친 형제나 친배 없이

친밀하였다.

효남이와 수득이는 다달이 월급을 타 모았다가, 내년 봄에는 꼭 같이 학교에 다니자는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일이 고되어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명랑하고 씩씩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언제나 명랑하던 수득이가 그 날 따라는 아침부터 몹시 침울해 하였다. 집에서 어머니가 대단히 앓고 있는 것을 보고 나왔기 때문이었다.

그 날 오후였다. 수득이는 효남이를 보고 돈을 좀 꿰어 달라고 하였다.

“돈?… 돈은 뭇에 쓰러니?”
“……”

“나두 오는 장날, 읍에 가서 공책과 만화책을 사와야 할터인데…”

효남의 말에 수득이는 고개를 풀거없이 숙으러 버렸다. 수득이는 돈을 꿰서, 어머니에게 의사를 매미다 보일 생각이었으나, 효남이가 공부하려고 고생 고생해 모으는 돈을, 억지로 빌터달라기가 저북했던 것이다.

마침 그 때 멀리 국민 학교에서 종소리가 울려왔다. 효남이는 종소리를 듣자 벌떡 췌겨 일어나서,

“애! 우리, 학교에 가봐!”
하며 쓴살 같이 학교로 달려갔다. 그러나 언제나 학교 구경하기를 좋아하던 수득이가, 그 날 따르는 뜻아가지 않았다.

학교로 달려온 효남이는 유리



“돈?… 돈은 뭇에 쓰러니?”

창 밑에 작달마 붙어서 코걸 안을 엿보았다. 책상에 앉건히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의 심세가, 효남에게는 말할 수 없이 부러웠다. 그때, 여선생님이 운동장으로 나오다가 효남이를 보고, 말을

붙이었다. 효남이는 묻는대로 낱말이 대답하고 나서,

“선생님… 열 찬할 먹은 아이도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하고 물었다.

“있구 말구, 내년부러는 의무교육이 실시되니까, 누구나 다 입학할 수 있단다.”

이 말에 용기를 얻은 효남이는, 기쁜 마음으로 목장으로 돌아왔다. 수득이는 사과 밭에서 사과를 따고 있다가 효남이를 보자,

“효남아… 월급날 꼭 갚을게, 돈 좀 꿰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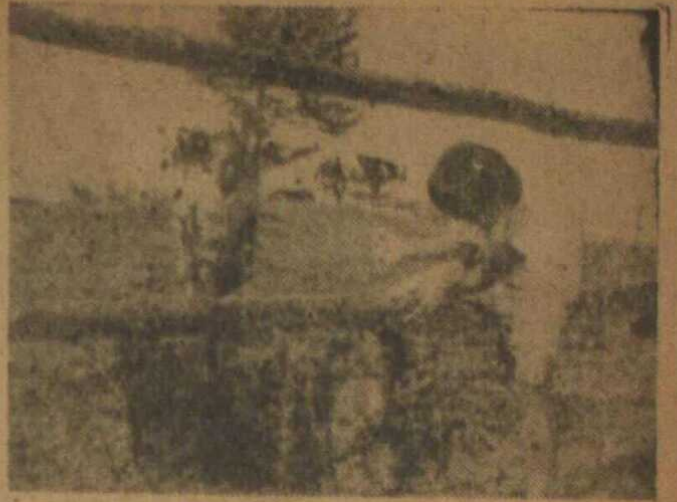
하고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집어 내었다.

“나두 공책을 사야 할텐데… 돈은 뭇에 쓰러구 그러니?”

“어머니가 앓아 누어서 약값 때문에 그래.”

“어머니가 앓으시? …… 약값 이리면 주인께 말해 보렴. 난 공책을 사려구 그해!”

수득이는 마침내 주인을 찾아 갔다. 그러나 주인은 없고, 사탕방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금시



“어! 수득아! 언제 오니?”

계가 눈에 떠었다. 수득이는 어머니의 병을 빨리 고쳐드리고 싶은 욕심에서 몇 번이고 망서리다가, 마침내 그 시계를 훔쳐가지고 나왔다.

“돈 꿰 왔니?”

하고 효남이가 묻는 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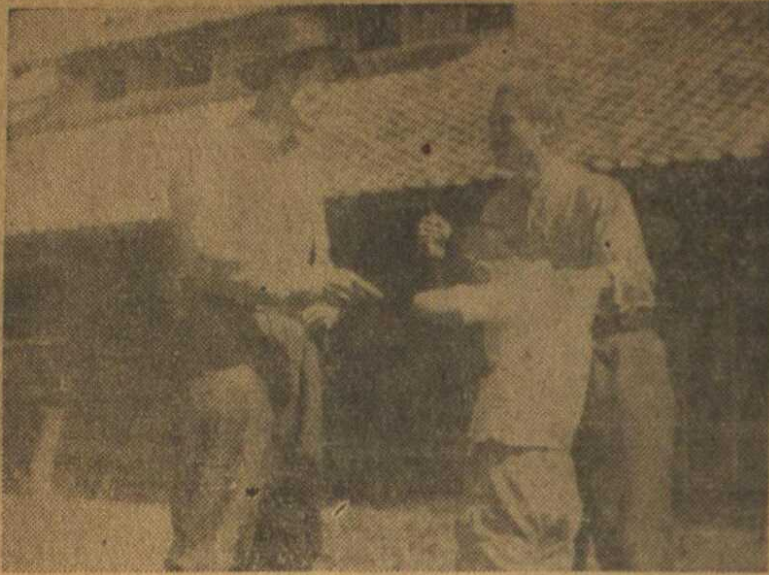
“주인이 안계셔…”

하고 대답하는 수득의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리었다.

수득이는 시계를 팔아 어머니의 약을 사려고, 그 길로 읍내로 달려 들어갔다. 그러나 시계를 팔려고 정작 시계방 앞에 가서, 남의 물건을 훔쳐 팔아먹는 것이, 큰 죄악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주인영감의 얼굴과, 항상 착한 아이가 되라고 타이르시던 어머니의 얼굴이, 저꾸만 떠올라 보이며, 수득이는 마침내 시계를 팔지 못하였다.

★ ★

수득이가 시계를 훔치간 바로 그 뒤에 효남이는 주인 집 사탕방을 소제하고 나서, 이내 수



“이놈아! 시계 내놓아라!”

글이네 집을 찾아 갔다. 아까 돈을 빌려주지 않은 것이 미안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수득이는 어더 갔는지 없고, 어머니가 혼자 앉아 누어 있었다. 효남이는 푼푼이 모았던 돈 백원을 내놓으면서, 약값에 쓰라고 하였다.

마침 그 때 주인 집에서는 시계가 없어진 것이 발각되었다. 사랑방을 초제한 아이가 효남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당장 효남이를 불렀다. 그러나 효남이는 저녁도 안먹고 수득이네 집에 갔다고 함으로, 주인은 점점 더 효남이를 의심하게 되었다. 아나 시계를 훔친 도둑놈은 틀림 없는 효남이라고 믿게 되었다. 효남이와 한 방에서 자는 늙은 며슴영감 김서방이, 아무리 효남의 변명을 하여도 조용 없었다.

효남이가 목장으로 돌아오자 주인영감은 대뜸,

“이놈아! 시계 내놓아라!”

하고 호통을 하였다.

“시계라뇨?”

영문을 모르는 효남이는 어리둥절하였다. 그러자 주인은 더욱 화를 내었다.

“너 이놈! 사랑 책상 위에 놓아둔 시계를 네놈이 훔쳤지? 그 시계를 어더다 감추어 두었느냐?”

“아-니, 시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아, 요 앙큼스러운 놈 보았나! 네가 시계를 훔치고 나서는 시치미를 떼어? 사랑방에 들어 갔던 사람은 너 밖에 없는데, 시계 없어진 것을 네가 모른다면 누가 안단말이나?”

주인은 불에 못이겨 장작을 집어들며 엄포를 하였다.

효남이는 억울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 울면서 변명을 하였지만 주인은 끝이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 화를 내면서 김서방더러,

“저놈이 시계를 훔쳐다가 주

들이네 집에 갖다 두었는지 모르니까, 당장 가서 알아보세요!”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효남이는 문득, 수득이가 어머니의 약값 때문에 그 시계를 훔친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 같이 떠올랐다. 그러나 친한 동무를 의심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되어, 효남이는 울면서 김서방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애걸하였다. 그 때문에 효남이는 더욱 의심을 사게 되어, 마침내는 그 날 저녁으로 주인집을 쫓겨나게 되었다.

이미 날은 저물었건만 효남이는 도둑놈이라는 누명을 쓰고, 울면서 캄캄한 밤길을 지향없이 걸어 나왔다.

★ ★

효남이가 나간 뒤에 사랑방에 주인과 단둘이 마주 앉은 김서방은, 효남이라는 아이는 결코 남의 것을 훔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누누히 변명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그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나쁜 놈은 경찰서에 말해서 단단히 버릇을 고쳐줘야 하는거야... 내일은 경찰서에 고발해서 혼을 좀 내도록 해야지...”

하고 단단히 버르는 것이었다.

한편, 수득이는 어머니 약값 때문에 시계를 훔치기는 했으나 양집에 피로워서 참아 팔지 못하고, 그냥 돌려드릴 생각으로, 주인을 찾아 오던 길이었다. 시계를 손에 들고 주인 집 사랑

문 밖에서 망서리고 있던 수득이는, 주인과 김서방이 주고 받은 말을 엿듣고 깜짝 놀랐다. 시제를 훔친 사람은 수득이. 자신인데 의심은 효남이가 받고 있는 모양이었고, 게다가 주인은 효남이를 찾아낸 뒤에 경찰서에 그날까지 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득이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효남이가 애대하게 욕을 보게 된 것이 하도 괴로워서, 수득이는 황급히 방 문을 열고 들어 서며 “주인님...시제는 제가 훔쳤어요!”

하고 시제를 내놓았다. 그리고, 잘못했던 일을 뻔 아프게 뉘우치며, 그 자리에 엎드려 이제를 들먹거리며 울었다.

괴로운 아이를 의심했던 주인은 그제사 크게 뉘우치며, 김서방과 수득이와 함께 횡불을 받고 효남이를 찾아 나갔다. 고요한 밤에 효남이를 부르는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 중에

도 수득이의 목소리는 더 한층 크고 저절었다.

횡불을 받고 어둠 속으로 쓴살 같이 달려 나가며 효남이를 부르던 수득이는, 마침내 처마를 한길에서 효남이를 발견하였다.

“효남아! 나 수득이다! 거기 좀 서있어!”

그 소리에 효남이는 발을 멈추고 돌아섰다. 수득이는 효남에게 달려오기가 바쁘게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울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효남아! 내가 시제를 훔친 거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효남이는 거기에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고,

“나는 이 길로 서울로 공부하러 가려니까, 너는 어서 집에 돌아가서 앓는 어머니 공대나 잘 해라!”

하고 수득이를 위로하였다.

“효남아! 고맙다. 모든 것은 내 잘못이었다. 너는 나를 얼

☆權泰應 童話集☆

감 자 꽃

여러 분이 잘 아시는 권태응선생님의 첫 동요집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 있는 동요들은 대개가 흠뻑 새 향기로운 농촌 동요인데, 모회에 사시는 분들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림 정현웅 선생님)

책 값 120 원

童話 文章 閣 齋

마나 원망했니?”

“아니야! 내 마음인들 얼마나 괴로웠겠니?”

그 때에 주인과 김서방이 횡불을 받고 나타났다. 효남이는 주인을 보자,

“주인님!”

하고 그의 가슴에 활짝 달려들어, 흐느껴 울었다. 주인도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효남아! 나를 용서해라!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 말에 효남이는 더욱 흐느껴 울었다. 수득이도 울었다. 주인과 김서방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그리하여 다시 목장으로 돌아온 효남이와 수득이는, 주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세 학기부터는 오래 전부터 소망하던 학교에도 다니게 되었다.

(끝)



“효남아 무지말아!”

동요

작은 예술가 유 달영

애기가 마루 위에다 재를 그립니다.
 손가락으로 보이지도 않는 재를 그립니다.
 그리다가 쓱쓱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그리어도 그리어도 보이지도 않는 재를 그립니다.
 나중에는 그만 지쳐서 누워서 그립니다.
 누워서 그리다가 소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두 팔을 어린 새 날개 같이 벌리고
 꿀꿀 잠을 잡니다.
 아마 귀여운 새가 되어서
 꿈나라의 하늘을 훨훨 날으려 합니다.



일본으로 간 우리 보물 (寶物)

국립 박물관 부관장 이 홍 직

여러 분은 삼년 전까지 약 사십년 간 일본이 우리 나라를 지배하여, 가지 가지의 압제를 한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 나라 동쪽 바다에 남북으로 길게 가로 막고 있는 섬으로써, 과거 수 천년 간 언제든지 우리 민족을 괴롭게 굴었던 민족으로, 우리 나라의 좋은 보배도 많이 가

져 갔습니다. 일본서는 고대부터 우리 나라를 "금은이 많은 보배의 나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근래 살라의 서울 경주 지방의 큰 무덤에서, 여러 금관과 귀걸이, 팔걸이, 띠(帶) 같은 놀라운만하게 금으로 만든 훌륭한 물건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사실 고대 우리 나라에는 보배를 많이 가지

고 있어서, 그것을 탐내고 많이 빼앗아 가기도 하였고, 또 그 문화를 본받아 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서 세세에 자랑하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 된 목조 건물(木造建築物)인 훌륭한 절 법륭사(法隆寺)와, 그 속에 모신 부처들은, 다 우리 백제(百濟) 사람들이 많이 가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가르쳐 주기도 하여서 된 것이니, 이것도 우리 나라에서 건너간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벌써 일천 사오백년이나 겨난 삼국시대 (고구려·백제·실라)일이라, 이 때에 건너간 보물은 지금 확실하지 못하지만,



법왕사 벽제관상 (法王寺壁制觀像)



법왕사 금당 의사여래상 (法王寺金堂 의사여래상)



안건 칠공유 드림도 (安堅七公유 드림도)

일본의 고분(古墳)서 나온 물건이 우리 나라 것과 비슷한 것과, 도끼, 부채 같은 불교 미술이 다 우리 나라 것을 본받은 것을 살펴 보면, 일본에 남아 있는 고대의 보배는, 거의 다 우리 나라의 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라가 중국을 통일한 후에는, 실라의 나라 위엄이 당당하여, 일본 사람들은 함부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였지만, 실라의 훌륭한 문화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고려시대에 들어 서서, 우리 나라의 위엄이 서지 못한 틈을 타서, 일본의 해안 백성들은 우리 나라와, 중국 해안지대에 많이 돌아져 나와서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왜구"(倭寇)라고 합니다. 이 "왜구"는 말하자면 해적(海賊)인데, 점점 그 피해가

심하여 서(西) 남(南) 해안지대에서 차차 육지 깊이 들어 와서, 쌀 같은 먹고 사는 물자는 물론이며, 나중에는 큰 절이든지 대가 집을 습격하여 좋은 보배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일본 각처의 절과 신사(神社)에 남아 있는 조선종(朝鮮鐘)은, 훌륭한 것만 서른 대여섯 개(三十五六個)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종은 실라시대와 고려시대 것이 세계에 자랑할만한 훌륭한 것인데, 그 중에 지금 경주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불덕사(奉德寺) 종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훌륭한 종이 지금 우리 나라에는 불과 서너 대밖에 남아 있는데, 일본에 사십 개 가까이 가져가 있으니, 여더 분 얼마나 기가 마길 일입니까. 그 중에는 명치(明治) 초년에 고물을 리술

하게 매집하였을 때에, 부서 버린 것도 있고, 또 외국에 팔아 먹은 것도 있습니다. 남의 나라 보배를 훔쳐다가 이런 행실을 다 한 일본은 참 괴씸합니다. "왜구"를 물리치고 나라의 위엄을 다시 세운 이태조(李太祖)가, 새로운 조정을 세운 후로 그 피해는 많이 없어졌지만, 서부 일본의 토호(土豪)들은, 이제는 공공연하게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하는 한편, 우리 나라의 보배를 또 많이 훔쳐서 가지고 갔습니다. 고려시대에 조선서 세계에 자랑할 보배는, 조선서 관 박인 불경(佛經)입니다. 지금 함천(陝川) 해인사(海印寺)에 있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은 그 대표가 됩니다. 일본 토호들은 이 훌륭한 경판을 맨땅스럼하게 수 없이 번갈아 와서는 작고 달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종 (朝鮮鐘)

우리 학교 교가★

서울 장충 국민 학교

나라에 충성 다한 이충무공의
거룩한 벗이 깃든 우리 장충단. |
그 정신 물려 받아 고이 간직함
장하다, 우리 학교 장충 어린이. |

장충단 고개 너머 푸른 한강은
끝 없이 흘러흘러 언제나 새물. |
나날이 새 지식을 불려나가는
밀브다, 우리 학교 장충 어린이. |
(윤 석중 지음)

다도 귀찮아서 있는 것을 작고 주
있더니, 한 없이 욕심을 채우려
고 들어서, 사실 조선의 불경이
거의 다 없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박인 것이 없으면 관을
달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와 같
이 하여, 고려관 불경이 상당히
많이 일본에 가 있으며, 지금 조
신에는 볼 수 없는 것이 일본에만
남아 있는 것이 또 많습니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 보물이 제일
많이 일본에 빼앗긴 것은, 이조
승간의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입니다. 앞뒤로 칠년 동안 우리
나라에 침략하였던 일본 군사들
손으로, 우리 나라의 좋은 문화
가 짓밟혀 사라진 것도 많거니와,
속속드러 가져간 것도 굉장합니
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우리
나라의 책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는, 세계에서 제일 빨리 또 가장

아름답게 금속으로 활자를 만
들어서 좋은 종이에 책을 많이
박았습니다. 이 훌륭한 책을 데
컬서 또는 대가집에서, 딱지는데
모 어떤 것은 책 কে책까지 함께
도둑질하여 갔으며, 또 활자도
수 십만 개 가져 갔습니다. 지금
이 책은, 일본의 내각문고(內閣
文庫), 궁내성 도서관(宮內省圖
書寮), 덕전가(德川家)의 봉곡문
고(蓬左文庫), 전전가(前田家)
의 존경각문고(尊經閣文庫)를
비롯하여, 각처 도서관, 고찰(古
刹), 구가(舊家)에 남아 있는데,
그 수효는 수 천권이 됩니다. 조
신서는, 임진왜란(壬辰亂) 후 중
요한 책은 다시 박았으나, 국력
도 약하여져서 그 권 판단치 인
출(印出)하지 못하고, 지금 우
리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책이
일본에 가장 많이 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책은 고려 시대부
터 전하여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이 책들은 정말 옥 같고 구슬 같
은 우리 나라 보물입니다. 그 외에
그림을 비롯하여 좋은 미술품이
간 것은 말할 것 없습니다.

같은 우리 나라의 보물이 많
이 간 것은, 과거 사십년간 채정
시대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완
전히 자기 마을대로 조선을 지대
하였다는 겸자, 학술적 연구와 관
동 취미가 상당히 발달된 까닭에,
예전에 비할 수 없는 정도로 많
은 우리 나라의 보물이 사사포리,
또는 나라의 힘으로 일본으로 빼
앗겨 갔던 것입니다. 미술품으로
는, 고려 자기, 불상, 서화(書畵)
공예품과 책등, 지금 그 수효를
확실히 알 수 없는 정도로 가져
갔고, 고고학적(考古學的)으로
발굴품(發掘品)도 상당히 가져
갔습니다. 그 중에 고신라(古新
羅)의 귀족들의 모습을 처음으로
확실하게 알게된 경남 양산(梁山)
부부총(夫婦塚)에서 나온
물품을, 한벌 나 갖다가 등경 국
립박물관에 옮긴 것은 주목할 인
입니다. 불건은 그 후 많이 나온
경주의 금관총(金冠塚)을 비롯
한 유물(遺物)보다 못하다고 하
겠지만, 학문상으로는 가장 중요
합니다. 해방 후 일본 학자 우메
하라(梅原)가 쓴 책 조선 고대묘
제(朝鮮古代墓制)속에, "지금 성
각하면, 그것을 일본에 갖다 놓
기를 잘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더 패전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하루 바삐 합심하여 나
타의 힘을 식욕하게 도와서, 당
당하게 이 드듯 당한 보물을 일본
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끝)



☆얼음으로 만든
집과 극광(極光)☆

이 지구 위에는 아주 더운 곳과 꼭 추운 곳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이야기하려는 것은 추운 지방의 것으로, 이 지구에서 제일 추운 곳은 북쪽 끝과 남쪽 끝입니다. 이것을 북극(北極) 남극(南極)이라고 하는데, 이

곳엔 일년 동안 내내 눈이 오시든지,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추운 곳이라 좀체로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곳이지만, 그때도 이 북극 근처에 에스카모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처에는 너무 추워서 풀이나 나무가 없으므로, 집을 만드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돌을 쌓아서 집을 만

들고, 겨울이 되면 눈을 쌓아 만들든지, 얼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림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얼음집이나 눈집은 조금도 녹지 않을 뿐더러, 절대로 녹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먹는데,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흰곰, 흰여우 등, 진기(珍奇)한 짐승들

이 있어, 에스카모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털로 옷을 해 입고, 기름을 만들어 불을 켜고 사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극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극광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하고 아름다운 것의 하나이겠지요. 북극은 1년 중 반년 동안은 밤으로 태양이 뜨지 않는다고도, 날마다

검검하고 낮이라는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 반면에 남은 반년 동안은 태양이 뜨는다고도 날마다 낮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밤만 계속되는 겨울 동안에는, 북쪽 하늘에 극광이라고 불리우는 아름다운 빛이, 태양과 반대되는 쪽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빨강, 파랑, 노랑, 자주, 녹색(綠色) 등, 가지 자색의 빛

으로, 마치 하늘에서 아름다운 막(幕)을 내리운 것 같이 되는 것인데, 무지개 보다도 더 똑똑하게 보이고 찬란하게 번쩍이는 까닭에, 이 극광이 나타나기만 하면, 마치 온 세상이 신비(神祕)한 빛으로 장식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나 붓으로는 형용하기 어렵다 하니, 얼마나 아

름답고 신비한 광경인지,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얀 쪽배 (1)

정 인 택
그림 · 정 현 웅



어둡고 험한 길

(1)

넓고 평탄하나 몹시 캄캄한
거리 한 복판을, 낡아 빠진 마
차 한 대가 덜그럭 덜그럭 굴러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반짝이는 강 건너 등불
불.

앞을 가로 막은 험뿔은 산등
성이.

태가 저물면서부터 날씨가 무
척 쌀쌀해서, 창 틈으로 기어드
는 바람이 제법 겨울 날 모양으
로 잡니다.

숨이 차서 허덕이는 말 고삐

를 잡고 앉았던 아버지는, 마차
가 철교를 건너 서자마자 자리
에서 쩡쨍 뛰어들어 내리시며,

“경애야.”

하고, 마삿속을 향해 부르셨
읍니다.

“네에.”

경애의 희고 가름한 얼굴이
밖을 내다 보았읍니다. 어딘지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애처러워 보였읍니다.

아버지는 말 고삐를 경애에게
내 마끼시며,

“너...먼저 가거라.”

좁 어색한듯한 말투로 외면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애의 눈에 급방 눈물이 글
썽혔읍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

는 수 없이 말 고삐를 받아 큰
경애는,

“아버지...”

커다랗게 부르고 나서, 잠깐
머뭇거리다가,

“...너무 약수 많이 잡숫지 마
세요.”

코개를 떨어뜨리고, 겨우 어
떻게 말했읍니다.

“그래...알았다...너의 어머니
약두 지어 가지구 가야겠구...”

아버지는 그래도 딸 앞에서
좀 부끄러우셨던지, 이렇게 변
명 비슷한 말을 남기시고,

“빨리 가거라...날부 출구 허
니...”

그리고는 부산하게 불 밝은
골목 속으로 걸어 가십니다.

경애는 아버지의 뒷모양을 눈물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앉았다가, 후우 하고 한숨을 내쉬고,

“아버지가 약주만 안잡수서 뭐...”

혼잣말로 중얼거리고, 채색을 들어 말 중풍아를 가볍게 쳤습니다.

마차는 다시 덜그럭 덜그럭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잔 장바람이 얼굴을 때립니다. 길은 다시 어두어졌습니다.

경애는 금방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슬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관에 박은 뜻이 아버지는 여기까지 오셔서, 경애더러 먼저 가라 하십니다. 오빠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아버지는 하루도 약주를 안잡숫고는 못배기셨습니다.

혼자 가기 무섭다고, 처음엔 몇번 양말도 췌 보았으나, 아버지는 그런 날일수록 더 약주를 많이 잡숫고 더 늦게 집에 돌아 오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애는 아버지 하라시는대로 으레 먼저 집으로 돌아왔고, 요새 와서는 아주 그것이 습관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인제 산 등성이 하나만 넘으면 집입니다. 경애는 또 번쩍 채색을 들었습니다.

(2)

한강 건너 가난한 사람들이

용기종기 모여 사는 곳!

계막지 같은 오막살이 집들이 산꼭대기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는 빈민굴.

경애네 집은 그 누추한 동네 바로 어구에 있었습니다.

담도 없고 대문도 없는 흙으로 만든 집, 방문만 열고 나서면 명색이 마당이지, 거기가 금방 길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한 다 쓸어져 가는 초가집.

경애는 집 앞애다 마차를 세우고 정정 단숨에 뛰어 내렸습니다.

“어머니!”

문 밖에서부터 어머니를 부르며 경애는 허둥지둥 방문을 열어 쫓아왔습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지요?”

“경애냐? 인제 오니?”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게도 힘이 드시는지, 어머니는 가쁜 숨을 억지로 참으시는 모양입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누미기물 덮고 누어 계신 어머니의 얼

굴은, 아침보다도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더 누어 주세요. 곧 저녁 것인데요.”

경애는 어머니한테 상냥하게 웃어 보이고,

“고단힐레미...천천히 허려꾸나.”

“제찮아요. 나두 배 고포질 댜...”

응석 부러듯, 이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내리신 경애는 우선 말 고삐를 끌러 주며,

“애셋다. 너두 배고팠지?”

그러면서 마구간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음엔 마차를 끌어다 기둥에 매놓으 나서, 경애는 부엌으로 들어가 두 팔을 걸어 불인 후, 풍로에 불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3)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때문인지, 어머니의 병세는 더한 것 같



있었습니다.

경애가 정성을 다 해 끓인 미음을 어머니는 겨우 한 숟갈 뜯까 말까 하였었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 보니, 볼 결이 뜨거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감으셨던 눈을 툇쩍히 뜨시고,

“아니다. 괜찮다. 그러다 낫겠지, 고단할테니 아무 걱정 말고 어서 자거라.”

그러나, 그 말소리조차 들릴 나 말낙하게 가늘었고, 숨가빠하시는게 보기에 도 몹시 괴로우신 듯 했습니다.

“이런 때는, 아버지가 열찍 좀 오셨으면...”

경애는 새삼스럽게, 할 취해 늦게 돌아오시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이 차차 깊어 감을 따라 전진이 불같이 뜨거워지신 어머니는, 나중에는 헛소리까지 하셨습니다. 나이 어린 경애는 혼자서 췌췌 배었습니다.

“아버지가 오셔야... 아버지가 오셔야...”

술이 취하셨더라도 아버지 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경애였습니다. 그러나, 통행시간이 거의 지났을때, 아버지는 뻔 일인지 영 돌아오시지를 않았습니다.

경애는 어쩔 줄을 몰라서, 마당으로 뛰어나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여름 하늘 같이 별이 총총한 맑은 밤이었습니다.

(4)

밤 새도록 경애는 눈 한번 붙여 보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아버지는 그에 곁에 돌아오시지 않았고, 어머니의 병세는 더욱더욱 중해질 따름이었습니다. 경애는 툽툽 부은 눈으로, 몽연히 집 안팎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어도 보았습니다.

그 불쌍한 정경을 본 동네사람들이, 하나씩 들쭉 모여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녀마장수 굼보 할아버지가 제일 친절했습니다.

굼보 할아버지는 경애 먹음 밥도 지어다 주고, 어머니 잡수

질 미음도 끓여다 주고 하면서,

“내 의자부 불러 올겸, 너의 아버지부 찾아 올겸 해서 갔다 올테니 너는 어머니 병 구원이 나 잘 해라.”

자기가 자전해서 이렇게 말려 주었습니다. 경애는 얼마나 고맙던지 눈물만 주르르 흐를 뿐 말이 나오지 않아, 수 없이 고개만 끄덕이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쿵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구 어머니!”

경애는 걸걸을 해서 땅으로 뛰어 들어 왔습니다.

방에 들어선 경애는 악 소리를 지르고 나가 지바질번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방 한 가운데가 쓰러지실채,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제쳤던 것입니다.

“어머니!”

경애는 외마뼀소리를 지르고 달려 들어, 어머니의 여윈 몸을 끌어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 발명의 시초 ★

잠수정(潛水艇)

물 속을 다닌다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아무도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이란데에 대한 흥미로써 물 속을 들어가 본다는게 마음을 들뜨게 했지요. 아주 오랜 옛날 일

은 모르지만, 17세기 때쯤, 이 잠수(潛水...물 속에 들어 가는 것)에 대한 연구열이 높아져, 여러 나라가 서로 다투어서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1626년에, 화란(和蘭)사람 코루네를루스·관·도레벨은, 노로졌는 크기 15퀴이트 가량의 잠수정(潛水艇)을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16명 가량 탈 수 있는 것

으로, 그 때의 동력(動力)은 공기, 또는 상소를 압착(壓搾)한 것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것과 동시에 영국사람 윌리엄·본이 잠수정을 만들었으나, 들어 다 지끔 것과는 비교도 못할만큼 유지하였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가 계속 되었으나, 좀처럼 좋은 것이 나오지 않다가, 1775년에

“어니!”

겨우 안아다 어머니를 자리에
취어 드렸습니다.

이윽고 가만히 눈을 뜨신 어
머니는, 머리맡에 앉아 있는
경애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내 딸 경애야. 착한 아이가
되어라. 남에게 귀염을 받는 아
이가 되어라. 그러구……남에게
저서는 안되느니라……”

“어머니! 그런 말씀은 나중
에 하세요. 알았어요. 어서 병
이나 나으셔서……”

“글세다. 그 병이 어디 나올
것 같으나……아무래두 이대부……”

말을 맺지 못하시고 어머니는
스르르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를 부르려
가신 품보 할아버지도, 좀체로
돌아 오시지를 않습니다.

기다리는 의사도 쉼 일인지 속
히 오지를 않습니다.

경애는 낫날이 시큰 하는 것
을 억지로 참으며, 무릎 사이에
다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달리는 마차

(1)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는, 그
나마 급방 꺼질듯 꺼질듯 합니

다. 경애는 참아 경애 앉아 그
것을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바치시 몸을 일으키려 할 때, 부
산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읍
니다.

“아버지가 오시나 보다……”

두렵기도 하려니와, 무엇보다
도 외로워 견딜 수 없는 경애는,
아버지 돌아 오시기만을 고대고
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애는 놀란 사람 모양으로
밖으로 뛰쳐 나왔읍니다.

품보 할아버지가 앞장을 서서
틀 안으로 들어 서고, 가방을
든 의사가 그 뒤에 따를 뿐, 아
버지의 모양은 보이지 않았읍니
다. 경애는 그만 눈물이 글썽하
고 말았읍니다.

“할아버지……아, 아버지는……”

경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
읍니다.

그러나 품보 할아버지는 못들
은 채하고 아무 대답도 안했읍
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 한 번
흔들어,

“가만 있거라, 그 얘기는 이
따 하마.”

그런 뜻을 알리고 나서,
“선생님. 죄송스럽습니다. 이

런 누추한말 오시라 해서……식
전이실텐데……”

이렇게 의사에게 말하고, 연
해 허리를 굽힐거립니다.

의사는 가방을 내며 종교 구
두를 벗으며,

“천만의 말씀입니다……이 방에
누어 계십니까?”

힐끗 경애의 얼굴을 바라보며
안방 쪽을 턱으로 가리켰읍니
다.

“네. 저어……이리부……”

경애가 가로채어 대답하고
나서, 방 문을 열고 옆으로 비
켜 셧읍니다.

어둠컴컴한 좁은 방에 풍기도
탁했지만, 이상한 냄새가 가득
차 있었읍니다. 그리고, 바깥보
다 별로 다를 것 없이 방 안에
찬 기운이 돌았읍니다.

의사는 약간 상을 찌프리며,
환자 곁으로 다가 앉더니, 한참
동안 말없이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 보고 있을 뿐입니다.

품보 할아버지와 경애는 무거
운 얼굴 빛으로, 의사 뒤에 가
쪼그리고 앉았읍니다. 불안한
생각과 무서운 생각에 가슴이

이르러 미국사람 부슈넬씨가 제
종물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
이 전쟁용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집수정으로, 모양은 거북의 등을
두께 확한 것 같은 것이었고, 그
이름도 도루체 (거북) 라고 불렀
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움직일 때
는 노로 쪼고, 뼈는 나무로 만들
었으며, 한 사람이 다는 것이었읍
니다. 물 속으로 가라앉으려 할

때에는, 정내 (艇內) 에 있는 물
통 속에다 물을 넣고 (注入) 들
때에는 콤투식으로 그 물을 뽑게
한 것인데, 밑에는 200 근이나 되
는 무거운 닻을 달아 두었읍니
다. 이것은 만일 폭풍의 고장이
나 그밖에 다른 일로 배가 뜨지
않을 때 이것을 배어 버리면, 떠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 위로 뜨게 되면, 자동적(自

動的)으로 뱃속의 공기가, 바깥
의 세 공기와 바뀌게 장치되어
있고, 무기 (武器) 용으로는 150
근이나 되는 화약이 담긴 상자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활가닥이
끈이 달려 있어, 직편 배 밑에다
나사로 그 끈을 붙들어 매면, 일
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폭발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었던 것입
니다.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2)

진찰을 마치고 난 의사는, 종잇장 같이 얇은 이불을 끌어 올려 어머니 어깨까지 덮고 나더니, 대단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혀를 끝끝 차며, 또 한참동안 말이 없습니다.

곰보 할아버지도 경애도 역시 말없이 의사의 얼굴 빛만 살필 뿐입니다.

한참만에, 굳게 닫혔던 의사의 입이 열렸습니다.

“딱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때까지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것은 나무라는 것 같기도 하고,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한 말투였습니다.

“여간 병환이 중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한약만 쓰셨던가요?”

“한약이나 어디... 제대두 써 봤습니까...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인데다... 보시다 싶이, 저

어린게 병 구원 원답시구... 혼자 애는 씹지요만.....”

곰보 할아버지는 자기가 잘못이나 한것 같이 째째 뻐니다.

“케니시틴이나 써 봤으면...”

의사는 혼잣말 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배 배슬이란게 먹는 약입니까?”

“이런 병에 아주 잘 듣는 미국 주사약인데..... 값이 좀 비싸 탈입니다.”

“그 비싸면... 돈 백환이나...”

“아니..... 그 주사 한대에 쌀 두말 값두 더 된답니다.”

“원 저런..... 꼼짝스러워라. 죽었던 사람이 소생한대두, 그 거야 어디 저희 같은 처지에...”

곰보 할아버지가 여기까지 말했을 때, 지금껏 가만히 듣고만 있던 경애는 불안간 한걸음 의사 앞으로 다가 앉았습니다.

“선생님!”

야무진 목소리로 부르고 나서, 경애는 무슨 큰 결심이나 한듯

이 대답하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약 값이 얼마나 해요?”

의사는 잠깐 놀란듯, 눈물 어린 경애의 눈을 내려다 보더니,

“너의 어머니시냐?”

“네.”

“으응, 고생 많이 했구나. 어머니 병환이 이렇게 위증하셔서 걱정이겠다.”

“.....”

경애는 무엇이랴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창백한 얼굴을 수그렸습니다.

“약 값은..... 한대에 삼천원은 쥐야 살게다”

“삼천원요?”

“그때..... 그 약이 내게 있으면 네 효성스런 마음을 생각해 서두 우선 와 드리구 싶지만...”

의사는 가만히 잔숨을 쉬었습니다. 입 밖에 내어 말은 안했지만, 의사는 경애의 총명한 태도와 말씨에, 그리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효성스런 마음에, 적이 감격한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디 가면 그 약을 살 수 있어요? 삼천원 아니라 오천원이라두, 어떻게든지 해서 제가 약 값은 만볼겠어요. 선생님! 제발 어머니 병환만 낫게 해 주세요.”

말하는 사이에 경애의 목소리는 차차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에 끝에 가선 울음이 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3)

가난한 동네에 구멍가게 같은 병원을 내고 있는 의사는, 역시 생활이 넉넉지가 못했습니다.

의사는 자기에게 약만 있다면 환대 아니라 무대라도 거저 놓아 주고 싶었으나, 약도 수중에 없었고, 그만큼 돈도 준비가 없었습니다.

약 값도 안받고, 도리어 미안할듯 의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언덕길을 걸어 내려 갑니다. 어제가 폭처진계, 위로 보아도 아주 풀이 죽어 보였습니다.

의사를 보내 놓고 나서, 머무 끝에 멍하니 서 있는 경애의 머리를, 곰보 잘아버지는 가만히 쓰다듬으며,

“경애야,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느니라. 미국 약이 아무리 좋다기우시니 너의 어머니 평환이 꼭 낫는다구야 할 수 있나.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이나 없게 비싼 약두 맘대두 써보겠지만, 우리네야 어디 그런 팔자가 되니. 너무 맘 썩이지 말구 따끈한 미음이나 즙 잡수시도록 해라. 내, 또 한바퀴 돌아서 너의 아버지나 찾아 보마!”

그러나 그 소리가 귀에 들렸는지 안들렸는지 경애는 빨리 하늘을 쳐다 보며,

“삼천원!”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 삼천원을 만드나? 경애의 어린 마음을 꺾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지금 그것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나 아무 마련도 없습니다.

“삼천원!”

경애는 또 한번 너까리었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엔 구름 한점 없고, 멀리 바다도 보이는 강물은 유난히 푸릅니다.

(4)

어머니 몰래 장 속을 뒤져, 무엇인지 한보따리 싸가지고 나온 경애는, 어머니가 잠간 잠드신 틈을 타서, 쓴살 같이 밖으로 뛰어 나왔습니다.

날이 추워 그런지, 상기가 왜서 그런지, 경애의 두 볼은 앵두 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두 눈에서도 맑은 총기가 햇불 같이 빛났습니다.

경애는 단숨에 머구잔으로 달려 갔습니다.

말 고삐를 끌었습니다.

말을 마차에다 달아 매었습니다.

말 고삐를 잡고 선뜻 마차에 올라 탄 경애는 체적을 번쩍 버티 위로 쳐들었습니다.

휘익 휘익.

경애는 비탈 길이고 뛰고 간에, 사정 없이 말을, 마차를 붙였습니다.

뚜벅 뚜벅 뚜벅 하던 말발굽 소리가, 쟁쟁 쟁쟁 그렇게 울려더니, 그 다음엔 탁 탁 하고, 무슨 들 매리는 소리라도 같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는 경애를 태운 채, 근부 박질을 하여 비탈길을 굴러 내려 갑니다.

길가달 사람들이 악 소리를 치며 길을 터었습니다. 그 가운데를 뚫고 경애가 탄 마차는 자동차 보다도 빨리 전차길을 향하여 달음질 치는 것입니다.

“저 기집애가... 아이구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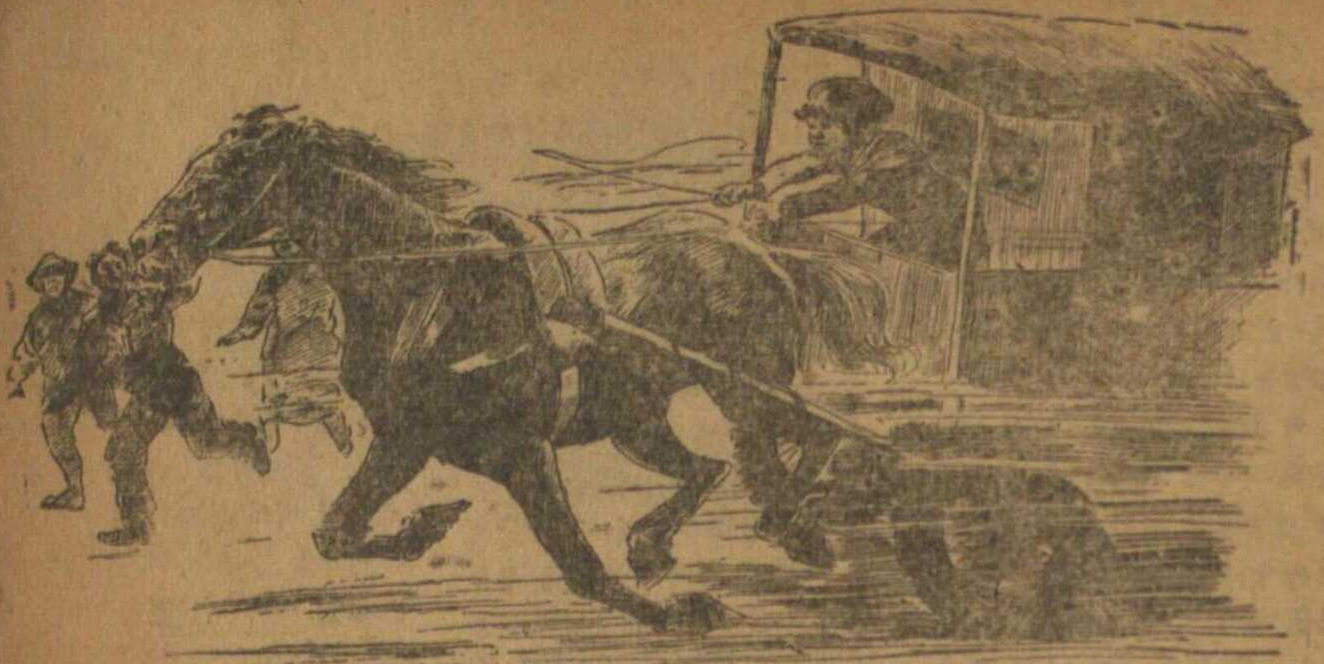
동요 밤길 박은종

고개 너머 시오리
밤길 홀-홀
움까지 누나마중
초롱불 홀-홀

풀숲에 반딧불도
초롱불 홀-홀
기다릴라 어서 가자
밤길 홀-홀



그림·김의환



저러다 사람 잡겠군.”

“이크, 이제 뭐냐.”

“저러다 마차가 뒤집히면 어찌러구...”

제각기 군소리를 하다가도, 마차에 탄 경애가 어린 소녀인 줄 알자 모두들 깜짝 놀라며,

“저런...저런...”

“아이구, 저 말이 미쳤군 그래.”

“저러다 사람 죽지 않나.”

말을 멈추고 모두들 어안이 빙빙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증빨난 사내 하나가,

“그 마차 세워 주우, 사람 다 차겠우!”

말이 미쳐 날뛰는 출만 알고 귀에서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워낙 말이 무섭게 뛰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그 앞을 막지 못했습니다.

말이 미쳐 뛰는 것은 아닙니다. 경애가 어머니 명환을 고

쳐 드리기 위해서, 아니, 주사 약 살 돈 삼천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마차를 몰고 있는 것입니다.

경애가 안고 나온 보따리 속엔, 경애 시집 갈 때 입으라고 어머니가 고이고이 간직해 오셨고, 경애 자신도 또한 목숨보다 중히 여겨 오던 비단 옷감 한 필이 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경애는 그 옷감을 팔아서, 어머니 약을 사리라 결심했던 것입니다.

덜그럭 덜그럭 마차 바퀴 소리가 더 한층 요란한것을 보니 마차는 지금 철교를 건너는 모양입니다.

경애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이 솟았습니다.

여윈 팔이 허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애의 눈에는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휘익 휘익.

경애는 사정없이 말 궁둥이를 채찍으로 갈겼습니다.

—(계속)—

물감은 어떻게 발견되었나?

박 동 식

옛날 물감은 풀뿌리, 나무 껍질, 잎, 줄기, 꽃 등에서 채 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는 물감은, 그 수요도 적고, 들이는 색도(色度)도 가지 각색이어서 아주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몇 천년 동안 아무런 진보도 발견도 못본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천연 이 천연적(天然的) 물감은 자취를 감추고, 온갖 아름다운 색감의 인조염료(人造染料)가

쓰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93년 전, 1850년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인조 물감 최초의 발견자는, 영국 런던의 이름도 없는 19세 어린 청년학도 윌리엄 파아킨으로, 우연한 기회에 발견된 것입니다.

파아킨은 그 때, 유명한 독일 과학자 호오루반의 조수(助手)로 아니린(화학약품)을 중(重)크롬산가리(酸加里)……이것도 화학약품)와 유산(硫酸)으로 산화(酸化)하여 마라티아 염에 없어서는 안될 해열제(解熱劑) 기니아를 만들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아니린 가운데 불순물(不純物)로 포함(包含)되어 있는 모루이진에서, 마켈라라는 빨간 염기성 염료(鹽基性染料)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보통 사람 같다면, 목적하는 기니아가만 만들어지지 않으니, 반드시 물을 내고 화물 낼 것이지만, 학문에 열심인 파아킨 청년은 “말로 재미있는 것이 생겼군……응, 이것을 다른 무엇에 이용할 수는 없을 것일까?” 골골히 그는 생각할 끝에, 당장 염색(染色)이 성행(盛行)하는 블란서 려온이란 도시로 가지고 가서, 비단옷감의 들어 보았읍니다. 그랬더니, 아! 이제 웬 일입니까? 아주 아름답고 고운 붉은 자주빛 옷감이 되지 않겠읍니까. 그는 이 빛을 모오비인이라 이름을 붙였읍니다.

그 후 인조 물감은 모오루바이부를 원료(原料)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만일 파아킨 청년이 이 때, “이까짓 물에 없는 것”하고 내 버렸다면, 물감의 발전은 더 늦었을 것이고, 오늘날 보시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고운 물감이

있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발전 발명 뿐 아니라, 무엇이든 조그만 일에서, 또는 세심(細心)한 주의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니, 이러 분! 공부하는 우리도 무슨 무엇을 소홀히 할 것이겠읍니까?
(끝)

★ 세계 명작 소년 소설 ★

십 오 소년

쥬울스 베르느 지음 • 이 경 열 번역



(十五少年의 합 장면)

일찍이 세계 각국 말로 번역되고 영화로도 박어져 온 세계 어린이들에게서 칭찬을 받아오던 아슬아슬하고 재미 있는 블란서 소년 소설! 이야기는 여러 나라 소년 15명을 태운 배가 어느 무인도에 표착함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림 • 정 현웅 선생님)

책 값 200원 ★ 건민문화사 발행

파는데 • 有吉書店 • 文章閣 • 永昌書館
(그 밖에 책사마다 있습니다)

그림 이야기

성냥 화는 소녀

안타깝게도 * 11월



① 다시 한번 성냥을 그어 봤습니다. 화안하게 불이 일어나더니, 그 불빛 속에서 깨끗한 방안이 들어다 보이며, 그 방안 한 가운데에는, 하얀 보르 덮인 테이블이 있고, 소고기나 파자, 사과, 칠면조고기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 마침 식사를 시작하려는 때인데, 이상하게도 그 접시 위에 놓인 칠면조고기가, 몸에 포오크를 적힌채 땅바닥으로 뛰어 내리더니, 아징아장 소녀를 향하여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아아! 신기해라.

그러나 금방 성냥불은 꺼지고 소녀 앞에는 두껍고 차거운 벽이 눈앞에 있을 뿐입니다.

② 귀여운 불꽃입니다. 소녀는 두 손으로 불꽃을 가리며 포이어 봤습니다. 꼭 그것은 하얗고 가느다란 촛불과 같이, 손바닥을 따뜻하게 하였읍니다.

그 조그마한 불꽃에 포이고 있었더니까, 이상하게도 그 성냥불은 혼란한 난으로 변하지 않았읍니까! 속에서 귀얼귀얼 불타는 소리가 나는 큰 난로지요.

소녀는 색슬한 다리를 포어 보려고 내밀어 봤읍니다. 그러나 마침 성냥불은 꺼지고 또 난로도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읍니다. 소녀 손에는 타고 남은 성냥개비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⑩ 세번째 불을 켜었습니다.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 나무는 크리스마스 날 밤, 어느 부잣집 유틀랜드 너머로 본 것보다 훨씬 예뻐했습니다.

수천 개의 촛불이 하늘의 별처럼 파란 가지 사이에서 반짝여리는 것이, 꼭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이렇게 훌륭한 크리스마스 나무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아! 또 성냥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냥불은 꺼져도, 크리스마스 촛불은 꺼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점점 위로 위로 올라가더니, 나중에는 높은 하늘의 외로운 별이 되고 말았습니다.

⑪ 차디 찬 겨울밤 하늘의 외로이 반짝여리는 별들……그 별 속에서도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밝은 것도 있으며, 또 희미한 것도 있고,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있었었습니다.

그 중에도 유난히 희미하고 푸른 별 하나가, 소리도 없이 걸게 광채를 남기고서는 추속 떨어지더니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아! 지금 누가 죽었나보다.”

소녀는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작기를 가장 귀여워 해 주시던 돌아가신 할머니가, 별이 떨어지는 때에는, 사람의 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⑧ 소녀는 또 한번 성냥을 그었
습니다. 주위는 다시 밝아지더니,
거기에는 꿈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할머니가, 영롱 웃으시면서
서 계시지 않겠습니까?

“할머니! 나도 함께 비리다 주
세요. 성냥불이 꺼지면 또 할미
니도 어디로인지 가버리시지 않
아요? 따뜻한 난로니 철면조고
거니, 커다란 크리스마스 나무
처럼, 할머니도 어디로 사라져
버리시지 않을까요?”

소녀는 추운 것도 배고픈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성냥불만 쬐었습니다.
성냥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리운 할머니가 더 보고 싶어서……
그리운 할머니가 어디로 가버리실
까봐.

⑨ 성냥불은 낮과 같이 밝았습니
다. 할머니는 그 밝은 불빛 속에
고고 이듬답게 언제까지나 아무데
도 안가고 비쳐 있었었습니다.

“할머니!”

소녀는 할머니 품 속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할머니 품 속에 꼭 안기어서, 할
머니와 함께 저 별이 반짝이려는
하늘로 높이높이 올라 갔습니다.

거기는 별나라이며, 모진 추위도
쓰라린 걱정도 없고, 오직 평화롭
고 아름다운 하느님이 사시는 곳이
었습니다.





◎ 그 여름날 아침 불쌍한 소녀는 차거운 벽에 기대인채, 새과한 입술에는 붉은 웃음을 띠우며 얼어죽어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손에는 타고 남은 성냥개비 하나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아이는 성냥불로 얼은 몸을 녹이려고 했나보다.”
하며 서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오늘 아침 새벽에, 얼마나 좋은 것을 보았으며, 또 그리운 할머니와 얼마나 아름다운 곳으로 갔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침 햇님만이 아는듯이, 소녀의 조그마한 몸을 비추줄 뿐이었습니다.

(끝)

지금 세계 각국 어느 곳에서나 일상 생활에 쓰이고 있는 바구니는, 나무뿌리나 등(藤), 혹은 뿔등줄 등으로 만듭니다. 이 바구니는 집에서 여러 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위로 혹은 십자(十字)가 되게 서로 어긋나게 짜는 것으로, 종류에 따라 짜기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틈을 넓게 혹은 좁게, 또는 빛깔을 중간에 넣거나 무늬를 넣어서 짜는 고운 바구니도 있지요.

그런데 이 바구니는 옛날 사람들이 날마다 생활해 나아가는데 필요를 느끼게 되어 고안

세계각국 바구니

(考察)한 것으로, 옛날 에콰도르 사람들은 곡식도 담아 두고 겸승도 걸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아프리카 예서는, 높은 곳에 큰 바구니로 곡창(穀倉)을 만들어, 추수한 것을 담아 둡니다. 또 옛날 태평양 연안(沿岸)에 있는 아메리카 언더안은 바구니로 모자 대용(代用)을 했던 것으로, 지금 온 세계에 널리

쓰이고 있는 과나마모자는, 아마 여기서 시작된 듯 합니다.

또 언더안과 오스트레리아의 보오트는 바구니로부터 시작되었고, 물병도 또한 옛날 언더안들이 바구니 결을 방수성(防水性) 형질으로 짜서 쓴 것으로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곱고 아름다운 색깔 바구니를 만들었고, 남양의 토인들은 명석 가방 등, 심지어는 큰 집 같이 바구니를 만들어 그 속에서 살림을 했다고 합니다.

☆ * ☆ *

소학생 작품



동요를 뽑고 나서

박 영 중

이제부터 여러 분의 작품을 내가 보기로 하였습니
다. 많이 많이 볼 보배하면 좋은 것을 뽑아 여기에 선기도
하리니 나의 작품을 우린으로 편지도 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그 중 큰 일로 여러 분의 지
은 노래를 보아드리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미리 몇가지 약속을 합시다.
첫째 나의 것을 뽑아 내지나 볼때 작어 보배지말 것.
둘째 글씨를 맑게 쓸 것.
셋째 미리 선생님께 보아서 선생님의 간단한 평(評)
을 달아 보낼 것. 그래서 명일 선생님의 말씀이 내 생각
과 다를 때에는, 내가 직접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동요 바 다

서울 정운 국민 학교 4년

김 종 상

월적월적 저 바다
아침이면 해님이 꽃밭 만들고
저녁이면 달님이 꽃밭 만드네



우리 나라에서 누가 제일 먼저
우두병을 법을 수입해 왔나?

송촌 지석영선생

조 용 만

요세 천연두(天然痘)란 전염병
이 많이 유행해서, 여러 분들은
모두 우두를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누가 제
일 먼저 이 우두를 수입해 왔는
지 여러 분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 나라에서는 천연
두를 마마라고 불렀서, 일생에 반

드시 한 번은 앓고나야만 한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 병은 역
신(疫神)이라는 귀신이 있어서,
이 귀신이 덮쳐 세우기 때문에,
약도 소용 없고, 귀신한테 빌어
서 끝까지 귀신이 병을 풀어 가지
고 나갈 때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1우두 병은 법이
1796년에 영국의사 에드워드스
젠너의 손으로 발명되고, 이 법
이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들어와
서, 평생에 한번씩 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마가, 우두를 한번 맞
아 가지고 손쉽게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에는 일본보다 이 우두 병
은 법이 일찍이 들어 왔었고, 또
우리 나라와 중국과는 왕래가 자
적서, 중국으로부터 우두 병은
법을 빨리 배워 올 수도 있었지만

중국에서는 이 우두 병은 법을 의
국의 요술이라고 하여 믿지 않고
나라에서 그것을 금해왔기 때문
에, 자연히 우리 나라에서도 그
것을 배워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
리고 또더러 우리의 적국인 일본
에서 배워오게 되었습니다.

1876년 고종(高宗) 13년에, 일
본으로 우리 나라 수신사(修信使)
라는 외교사절단이 간 일이 있었
습니다. 그때 그 일행 중에 박
영선(朴永善)이라는 분이 있었는
데, 이 분이 동경에서 일본 의사
에게서 우두 병은 법을 설명받고
또 그 법을 쓴 책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일본에는, 이 우
두가 많이 실행되어서, 사람들이
무서운 마마를 앓지 않고 살아 왔
습니다. 박씨는 어서 우리 나라
에도 이 법을 실행해서, 불쌍한

동요 우리 아기

경북 김천 국민교 3년

김 영 수

우리 아기 젖 먹을 때
오물오물 입으로
꿀떡꿀떡 먹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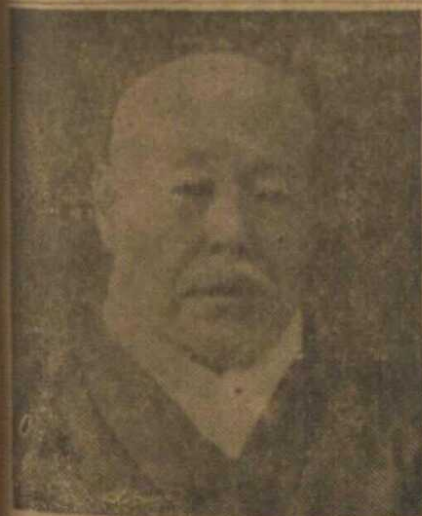
동요 누나 손

서울 하양 집터 512

엄 창 섭

누나 손바닥엔
손금 셋이 나란히 있어요.

누나 손가락엔
반지 둘 나란히 끼워 있어요.



백성들을 구해냈으면 하고 생각
했습니다. 그때 서울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로 이 신기한 우두법이
야기를 하였으나, 모두들 믿지않
고 도리어 박씨를 외국 요술에
속은 사람으로 돌렸습니다. 그
때 박씨가 글가로치던 제자 중에
지석영(池錫永)이라는 분이 있
었습니다. 박씨는 이 지석영에

게 그 이야기를 하고, 일본서 가
지고 온 책도 주었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자기 선생님의
이 말을 믿고, 또 그 책을 보아
서 이 우두 넣는 법이 옳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배울데도
없고 해서 답답하게 지나던 중,
그보다 3년 후인 1879년 고종
(高宗) 16년에, 마침 지선생의
조카가 이 마마로 죽자, 더욱 이
우두 넣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그 때 부
산(釜山)에는 일본 사람 거류민
(居留民)이 와 있고, 그들 속에
는 우두를 넣을 줄 아는 의사도 있
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리하여
그 때 스물 세살 먹은 지선생은
결심하고, 돈 댓냥을 가지고 서울
서 걸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보름이나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
여 가지고 말이 통하지 못하는 것

을, 가진 고생을 다 해서 일본 의
사에게 우두 넣는 법을 배웠습니
다.

이리하여 우두 넣는 법을 배우
고 우두 약도 얻었으나, 어떻게
이 법을 시험해 볼 수가 없었습
니다. 모두들 선생을 미친 사람
으로 몰려서, 암만 권해도 우두
를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
생은 기어코 이것을 시험해 보고
싶어서, 서울로 오는 길에 충주
(忠州) 처가집에 들러 억지로 권
해가지고, 두알 먹은 처남에게 처
음으로 우두를 넣었습니다. 이것
이 훌륭하게 성공하여, 그 때부터
차차 지선생은 신음을 얻게 되고
우두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이 지금으로부터 거진 70년 전 일
입니다.

지석영 선생은, 우리 나라에
우두 넣는 법을 처음으로 수입해
온 큰 선각자입니다.

삼국시대 과학 (7)

(상)

홍이설



제3도 경주 석굴암의 삼층도 (廣開土王廟) (앞으로 본 것)

수학·건축(數學·建築)

흔히 권분학이 발달된 것을 보면, 그 당시의 건축 기술과 함께 수학지식(數學知識)의 발달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일찌기 고구려에 관한 역사 기록을 보더라도, “궁실(宮室...지름 궁전이란 말과 같다)을 짓기 좋아 했다”고 하였다. 또 보통 사람들의 집은 초가집으로, 다만 궁전(宮殿)이나 절(寺院)은 기와(瓦)로 지붕을 덮었다는 얘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사람들은 일찍부터 구들(온돌)을 만들어 한 겨울에는 불을 때어, 따뜻하게 살 수 있게 집을 지었다. 지금에는 구들 만드는 것이 그리 과학으로써 생각키워지지 않게 널리 알려졌지만, 아주 오랜 옛날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건

축에 있어 구들 짓기는 큰 과학의 생각에서 산출(産出)된 것이라고 하게 된다.

더욱 고구려의 건축기술은 어디서 자랑 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압록강(鴨綠江) 연안에 남아 있는 옛 무덤(고분...古

오늘에 와서 조사(調査)에 편하게 하려고 한 것, 층(塚)은 무덤이란 말”을 한 예(例)로 들어서 얘기하겠다.

정군총은 만주(滿洲) 증안현성(輯安縣城) 동북 소구자산(土口子山) 중턱에 있다. 그 높이가

모 팔아 올리고, 꼭대기 지붕은 둥그런 무덤으로 만들었다. 여기서 찾아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와 같이 큰 석재를 모모리 깎아 맞춰서, 12,1미터의 높이를 차츰 범위 줄어 가며 쌓아 올린 것은, 곧 고구려 사람들이 건축 기술에 있어, 수학에 의한 지식이 그만큼 발전되어 있었던 것이다. 또 이렇게 석재를 맞추어서 쌓아 올리면서, 자봉에 거는 석회(石灰)로 문크리(화를 가지고 다져서 만드는 것)를 하였던 것이다. 그 단단한 공이 오늘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 경양 근처에 있는 청암리(淸岩里)에 남아 있는 옛날 사원(寺院) 건축의 터(遺址)를 찾아 보아도, 전각(殿閣)의 배치(配置)가 수학 상 조금도 어긋남이 없



제1도 경양 근처 청암리의 고구려 시대의 절유지(遺址)

墳)들의 건축 양식(樣式...모양)과 구조(構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수많은 무덤 중에서 대표로 볼만한 정군총(將軍塚...광개토왕(廣開土王)의 무덤으로, 옛 무덤에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은,

12,1미터로, 맨바닥 첫 층(初層)은 한쪽 넓이 약 30,3미터로, 모두 일곱층으로 되었다. 네 모진 방판(方版...번듯하게 모진 판)으로, 밑에서 위로 올라 갈수록 차츰 줄어들게 화강암(花崗岩)의 큰 석재(石材)

어, 질서 (秩序) 정연 (井然) 하게 된 것을 가지고, 고구려 건축 기술의 기초 (基礎)가 된 수타 지식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제1도)

이 때 남으로 백제와 실타의 건축에서도, 또한 고구려와 같이 그들이 건축 기술에 있어, 기본 지식이 수학적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백제의 건축물 (建築物)도 부여 (扶餘...승정남도) 군수리 (軍守里)에 남아 있는 절터 (廟寺址)의 탑 (塔)과, 익산 (益山...절터북도) 비록사터 (彌勒寺址)의 석탑 (石塔) 등에서, 그것이 수학적으로 가장 정확 (正確)한 비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사원 배치도 북방의 고구려와 다름 없이, 똑바로게 수학적 비례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백제에는 사공부 (司空部)라는 관청이

있었다. 이 예기는 중국 의 역사 책 주서 (周書)에 있는 백제전 (百濟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사공부란 관서(官署)는, 국가의 모든 공작(工作) 즉 건축과 일반 공서(工事)를 맡아 보는 것이다. 여기서도 왕궁·불사(佛寺)의 건축이며, 축성(築城...성을 쌓는 것) 농업생산(農業生産)을 위한 저수지(野水池...보)·제방(堤防) 구축(構築...임에서 쌓는 것) 등의 일을 하였던 것이다. 어보 보아 백제의 토목공학(土木工學)의 발달은, 삼국 중에서도 상당히 고도(高度)의 수준(水準)에 이르렀던 것이다. 더욱 궁중 치경에 있어, 정원 공사(庭園工事)의 기술이 또한 훌륭했던 것은, 다음의 예기에서 잘 알 수 있다.

“동성왕 (東城王) 2년 (서력 500년) 봄에, 왕궁 동쪽 시내가에 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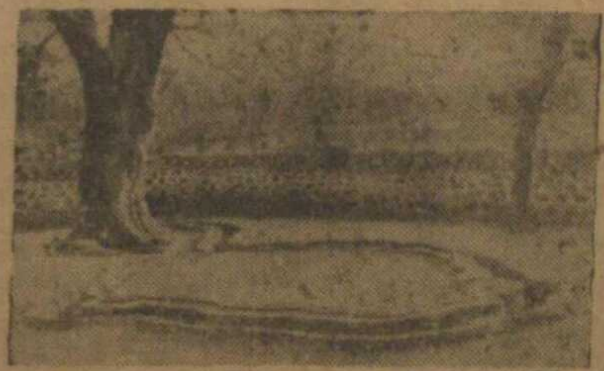
(殿閣)을 지으니, 높이 천자요, 또한 못을 파고 진기(珍奇)한 짐승을 놓았다.”
 “무왕 (武王) 25년(서력 634년) 봄 2월에, 왕흥사 (王興寺)가 이루어지다. 그 절이 불가에 있고, 채색(彩色)과 장식(裝飾)이 굉장하고 아름다웠다. 왕이 예양(豫) 배를 타고 절에 들어 부처님께 절하였다.
 3월 왕궁 남쪽에 못을 파고, 20리 밖에서 물을 끌어 데며 못가에 돌러 버드나무를 심고, 물 가운데에 섬을 만들어, 신선 사는 방장산 (方丈山)과 같게 하였다.”

고 한다. (이 글은 글 쓰는 이 사람이, 여러 분들에게 얘기하기 위해서 원 탁문으로 된 것을, 알아 보기 쉬움게 국문으로 고쳐 쓴 것이다. 원문(原文)은 김부식 (金富弼) 삼국사기 (三

國史記) 제 26·27권에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1천 5백 년 전 조선 사람들의 건축 기술, 더우기 백제 사람들의 정원을 꾸미던 조원 기술(造園技術)을 살펴볼 수 있다. 백제 사람들의 건축에서 지금 부여의 동쪽 10리 거리에 있는 현내면 (縣內面) 왕릉리 (王陵里) 고분(古墳)에서, 그들이 대리석(大理石)을 물로 끄개 갈아서 쓴 것을 찾게 된다. (물을 물로 가는 것은, 끄개 다듬은 다음 숫돌을 가지고 물을 발라 가며 가는 것) 이렇게 호화스럽고 아름다운 건축 기술이, 북과 남에서 찾아 나고 있을 때, 동해 (東海)의 조그만 나라 실라는, 조천을 통일했고, 이에 따라서 이런 기술도 실타의 통일에 따라 종합(綜合)되게 되었다. 실타 사람들이 천문학의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그 기본이 되는 수학 지식이 충분했었던 것은, 먼저 말한 청성대 같은 것이 남아 있어 좋은 증거(證據)가 된다. 삼국사기에서 보면, 실타에서는 산학박사 (算學博士)도 조교 (助教...삼학조교)를 두고, 절경 (綴經)·삼개 (三開)·구경 (九



제2도 건축 미보본



제3도 옛날의 원은 예보다 여기에 응용된 파기법을 다시 생각하자! 건축 프렉징

농부 화투
농부와 사과나무

어느 시골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사과나무를 가진 한 동무가 있었지요. 어느 날 이 동무는, 사과나무 묘목(苗木) 하나를 농부에게 주며, 집에 갖다 심으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그 묘목을 받고 아주 기뻐했지요. 그러나 그것을 집에 가지 가지고 와서는, 어디다 심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하면 만일 사과나무를 한걸 가까이 심었다가는, 길 가는 사람들이 사과를 도둑질해 갈 것이



집 근처에 심는다면, 저기 자식들이 따 먹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는 망서리고 궁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다 못해 할 수 없이 깊은 산 숲 속에다 심었습니다. 아무도 사과나무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할만한 그러한 곳이었지요. 그러나 몇 벌도 안 들고 길지도 못한 땅에서 어찌 사과나무가 자라겠을까? 말할 것도 없이, 그 사과나무는 죽고 말았지요.

그는 어디다 심을고 하고 이리저리 궁리했으나, 좋은 생각이 나서지 않았어요. 왜 그리냐

고, 또 만일 그것을 밭에다 심는다면 동네 사람이 밭에 몰래 사과를 따갈 것이고, 만일 자기

그 후 어느 날 농부와 그 동무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무는 자기가 준 사과나무가 죽었다는 말을 빌쳐 들은 귀타 농부에게,

章)·육장(六章)을 가르쳤었다고 했다. 여기 보인 각 수학 과목(科目)은 전부가 중국 것이다. 요새 여러 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셈본”에 나오는 것 전부를 공부했었다. 그런데 고대의 수학 교육(教育)은, 일부의 관리를 위하여 실용을 위하여 시행했다. 즉 건축·측량(測量) 일반 계산(計算)이 일상 생활에 필요했고, 그 당시 나라를 다스려 가는 데 있어, 수학이 얼마나 필요했던가는, 중국의 학술(學術)을 받아들인 지배자(支配者)들은 충분히 이해(理解)했다.

농사(農事)를 짓는데는 천후(天候)의 변동(變動)을 알아야 하였으므로, 일찍부터 조선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사회(人類社會)에서는 달력(曆)이 필요했었다. 조선에서는 실라 때 당(唐) 이 순종(李淳風)의 인덕력(麟德曆)을 수입해서 사용했었고, 백제에서는 그보다 앞섰던 송(宋)의 원가력(元嘉曆)을 받아들여 있었다. 이런 역서(曆書)의 수입은 정하여 그에 사용된 수학 지식의 수용(受容... 받아들임)을 말한다. (역서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말을 할가 한다.)

실라의 건축 또한 앞서 얘기한 모든 방편의 수학 지식을 응용(應用)한 것이다. 지금 자랑할만한 것으로 경주(慶州)의 불국사(佛國寺)와 석굴암(石窟庵)·포석정(鮑石亭) 같은 것을 들겠다. 이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두겠다.

불국사에 남아 있는 건물은, 조선 시대(李氏朝鮮時代) 중엽(中葉) 이후의 것으로, 그 규모(規模)와 계획(計畫)을 알아 보려면, 남아 있는 초석으로 이 사원의 가람(伽藍=불사...佛寺의 집) 배치(배치)를 살펴본다. 이 가람 배치 또

한 조금도 어긋없이 수학의 계산(計算) 기준(基準)으로 삼았던 것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졌다. 그리고 그때의 건축 기술을 자랑하는 다보탑(多寶塔)(제2도)과 석가탑(釋迦塔)의 구조 또한 균형(均衡) 있고 아름다울게 된 그 기본에는, 실라 사람의 수학적(기하학...幾何學) 미덕과 솜씨가 응용되었던 것이다.

석굴암은 지금 불교 미술사(佛敎美術史... 불교에 관한 미술사를 살펴보는 역사에서 가장 눈이 뜨이는 것인데, 이것의 구조(構造)를 건축학(建築學)에서 볼 때,

“어쁘게 이사람아! 왜 그렇게 번번송지 않은 곳에다 나무를 심었던 말인가? 어리석은 것도 하였지.”

아 그랬더니 농부는 킁킁 하며 노기가 가득 찬 얼굴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걱정인가! 짐으라고 주었으면 그만이지,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배 없는 잠전이야. 이사람아 내 말을 잘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그때 나무를 길가에 심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사과를 훔쳐 갈 것이고, 밭에 심으면 동네 사람들이 따갈 것이고, 집에다 심으면 자식들이 따 먹을 것이 아닌

가. 그래서 산 속에 심었지. 그때 누가 어리석단 말야!”



“아! 그렇지만 어디다 심든 그 나무가 자라 열매가 연다면, 누구든지 이 세상 사람

중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그 사과를 먹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네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나무가 자란 뒤에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자네 혼자서 모두 빼앗아 간 셈이 아닌가.”

그의 친구는 이렇게 한탄하며 말하였습니다.

여러 분!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매우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림·김 의한

또한 수탁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 여기서는 석굴 속의 불상(佛像)이 아름다운게 제작이 되고, 그 배치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모라게 된 것보다, 순전(純全)히 돌만 깎아서 굴을 만들고, 동그런 지붕을 돌로만 얹은 것이며, 굴 속으로 받아 들이는 광선(光線) 관계며, 또 공기 유통(流通)이 알뜰한 등을 말할 수 있다.

(제 3호)
포석성은 전해지는 얘기로는, 호화로운 골짜기가 아직 엉킨 듯 하나, 이제는 활활히 번터에 불고로던 불꽃만이 남아 있

으나, 이것이 실라 때의 과학적(科學的) 기술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 돌화는 정복(鎔) 모양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이 단순한 손장난이 아니고, 과학적인 원리(原理)를 이에다 응용하였다. (제 4호) 이 화은결 돌에는 스물네쪽의 돌로, 안 돌에는 열두 개의 돌쪽으로 쌓은 것으로, 여기에도 동양(東洋) 사람들의 12·24의 간지(干支)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진에 경주 남산(南山)에서 흐르는 물을 이끌어, 이 구불 구불한 포석(鮑石)의 골짜기를 흐르게 한 것이다.

이 포석의 내를 끼고 둘러 앉아 잔치를 할 때, 술잔을 이 물에 띄우면 걸터지 않고 뒷자리에 서 아래로 떠내려 왔다고 한다. 여기서 전날 국왕이 호사스럽게 놀던 얘기는 다른데서 찾기도 하고, 그렇게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알았던 실라의 기술가(技術家)들이 훌륭하게 과학 지식을 가졌던 것을 다시 기억해 두자.

× × × ×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실라의 과학 지식과 기술에는, 백제 사람의 공이 크다. 백제가 실라에게 망한 뒤에, 백제 사람

들, 특히 이런 기술가들은 실라의 사원 건축에 종사했던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실은 고대 때 만든 삼국유사(三國遺事)란 우리 나라 역책 속에 적혀 있다.) 또 백제 사람들은 실라의 과학 기술에만 공헌할 뿐 아니라, 지금 서부 일본 열도를 식민지로 개척하여, 철문, 수학, 건축기술 등을 가져오고 가서 있었다. 이어 삼국 통일이 된 뒤 실라의 건축이 발달되며, 한편 실라의 양식(樣式)은 일본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끝)

피노치오

디즈니 * 그림
작은틀 * 역음



피노치오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너무나 재밌고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각각 다른 피노치오를 써서 많은 피노치오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 분 앞에 나타난 피노치오는, 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만화가인 디즈니 씨가 영화로 꾸민 것으로, 같은 모로시·윌터·바우치가 쓴 것입니다. (편집실)

1

옛날, 어느 조그만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고양이 한 마리, 금붕어 한마리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애는 없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제페트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나무토막을 깎아서 여러가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삐죽시계도 깎아 만들었습니다. 음악상자도 깎아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삐죽시계를 자꾸자꾸 만들었습니다. 음악상자를 자꾸자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느 날, 다른 것을 하나 깎았습니다. 나무토막으로 인형을 만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열심으로 인형을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것은 썩미외라는 귀뚜라미였습니다.

“자아.”하고 할아버지는 고양이 튀가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아.”하고 할아버지는 금붕어 클레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이렇게 훌륭한 새 인형을 만들었다. 내제는 고양이가 있고, 금붕어가 있다. 그런데 어린애가 없어 어떡하면 소원을 풀담.”

이렇게 혼자 말하고 나서, 제페트할아버지는 인형에다 석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과 팔부터 칠하였습니다. 눈과 귀에 칠하였습니

다. 입과 코에 칠하였습니다. 차례차례 오색 칠을 예쁘게 칠해 나아갔습니다.

“인제 조금만 손질을 하면 다 됐다.”

이제는 동안에 귀뚜라미 썩미외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지요.





제페로 할아버지는 빙글 빙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잘 수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마을은 고요하였습니다. 할아버지와 고양이와 금붕어가 다 잠이 들었습니다.

이 때에, 별 하나가 창 너머서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새 인형은 다 되었습니다. 상 위에 올려 얹혀 놓았습니다.

“바라.”하고 제페로 할아버지는 고양이 퀴가르에게 의뢰했습니다.

“바라.”하고 제페로 할아버지는 금붕어 클레오에게 의뢰했습니다.

“아 인형을 좀 보란 말이야. 아주 산것 같지?” 하고 나서 좁은 제페로는 한숨지었습니다. “그렇으면 오직이나 좋으련만!”

다시 한 번 제페로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양이가 있고, 금붕어가 있고, 인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형은 산 것이 아닙니다.

제페로 할아버지는 손수 나무를 깎아 만들었던 것을 한 번 꾸욱 눌러 보았습니다. 딱꼭시제도 보고 음악상자도 보았습니다. 딱꼭시제는, “인제 주무실 시간이 되었소.” 하곤 웃어 밤 늦은 것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우선 인형에게 이름을 지어 주어야 했어요.

제페로 할아버지는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아주 색 마음에 드는 좋은 이름을 인형에게 지어 주어야 했어요.

이러는 동안, 퀴푸라미 쩌미네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제페로 할아버지는 “그렇지!”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인형의 이름을 짓게 된 것이랍니다.

“피노치오! 그렇지, 피노치오가 좋아, 귀엽고 멋진 내 인형은 피노치오라고 부르는 것이 좋아.

갑자기, 제페로 할아버지는 몸을 일으키었습니다. 별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오, 별이로구나. 소원을 풀어 주는 별이 뵈구나.”

하고, 제페로 할아버지는 빨리 소원을 말했습니다.

“귀여운 새 인형 피노치오를 참말로 산 아이를 만들어 줘소서. 제 소원이옵시다.”

좁은 제페로 할아버지는 다시 자리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고양이가 퀴가르, 금붕어 클레오도 잠들었습니다.

온 집안이 아주 고요했습니다. 음악상자도 고요했습니다. 딱꼭시제도 고요했습니다. 새 나무로박 인형 피노치오는 제페로 할아버지가 놓아 둔 데르 책상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퀴푸라미 쩌미네만은 잠





가만히 선녀는 피노치오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작은 인형은 다리를 팔을 흔들었습니다. 두 눈을 굴렸습니다. 입을 움직이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고, 제페토 할아버지는 잠들었고, 클레오는 잠들었고 퀴가로는 잠들었습니다. 다만 퀴푸타미 저미너만이 보고 있었어요.

“오오, 난 살아 있구나.”

하고, 피노치오는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리와 팔을 놀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굴려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입을 움직여 보

자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시다. 있었어요.

“참말일세. 난 살았네. 이제 정말 사람의 아들이 되어야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피노치오는 말했습니다.

“아니다, 피노치오.”

하고 푸른 옷을 입은 선녀는 피노치오의 말을 막았습니다.

“넌 정말 사람의 아들은 아니란다. 나는 너를 살아 있게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사람의 아들을 만들어 준 것은 아냐. 그건 네가 하기에 달렸을 뿐이란다. 네가 착하고 어질다면 사람이 될 수 있지.”

푸른 선녀는 더정하게 빵긋이 웃었습니다.

2

푸른 선녀

별은 아직도 제페토네 창 너머로 반짝거리고 있었습시다. 그 별은 푸른 옷을 입은 선녀였습시다. 선녀는 아주 예쁘고 금빛처럼 노란 머리를 하였습니다. 선녀는 창을 너머 제페토 할아버지 방으로 실뿔이 내리 왔습시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습시다.

이윽고 푸른 옷을 입은 선녀는 제페토 할아버지 자리에 가까이 왔습시다. 그리고 어진 눈으로 빵긋이 웃었습니다.

“착한 제페토, 당신은 늘 그렇게 착하고 친절했지, 내 당신의 소원을 풀도록 해주리다.”

선녀는 돌아서서, 나무토막 인형이 놓인 제상으로 갔습시다.

“나는 너를 참말 사람의 아이를 만들 수는 없다. 그건 네가 하기에 달렸지, 하지만 난 너에게 생명을 넣어 줄 수는 있다. 그렇다. 피노치오야, 내 이제 너를 살도록 하여 주마, 이제 끝.”

가만히 선녀는 피노치오를 만졌습시다. 가만히



"부디 착하거라, 피노치오. 부디 어질거라, 피노치오. 그 때에 너는 정말 사람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만약 네가 착하지 못하다면, 너는 언제나 인형으로 있으리라."

"그러하오나 내가 어찌 착하지 못한 것을 깨달겠나이까?"

피노치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때에 귀뚜라미 찌미네가 경중 뛰어 올랐습니다. 더 오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찌미네는



선녀의 사랑스런 눈이 찬 층 빛났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선녀는 간 곳이 없었습니다.

피노치오는 찌미네를 보았습니다.

찌미네는 피노치오를 보았습니다. 둘이서는 노래와 춤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찌나 좋았던지 그만 정신없이 펄펄 뛰었습니다.

노래 노래 부르자
춤 춤을 추어라

작은 마을은 인제는 고요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피노치오, 그것은 어렵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푸른 선녀는 금빛 머리를 돌리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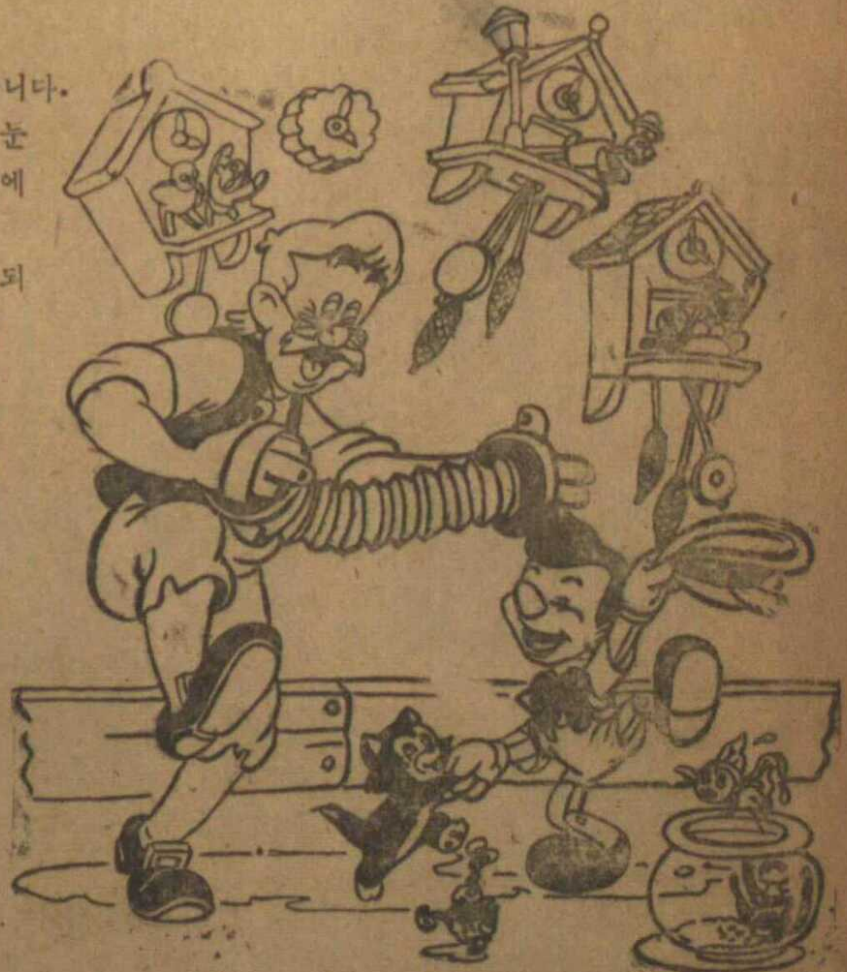
선녀는 요개를 끄덕거리고 사랑스런 눈을 반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에게 물었습니다.

"찌미네야, 너 피노치오의 동무가 되어 주겠니? 너 언제나 피노치오가 가는 곳에 따라 가겠니? 네가 동무가 되어 언제나 피노치오가 잘못했을 때 일깨워 줄 수 있겠니? 네가 꼭 나와 약속을 할래나? 찌미네야, 약속을 하겠지?"

"예, 하고말고요. 꼭 그렇게 하오리다. 저는 피노치오의 동무가 되겠습니다. 피노치오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지요.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일깨워 주지요. 저는 동무가 되겠습니다."

"착하다 찌미네."

푸른 선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가만히 말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단
기 4256년 5월 1일, 주교
보통 학교로 첫발을 내딛은 이

학교는, 10년 전 방산이라 교
명을 바꾸어 이 나라 어린이를
훌륭하고 씩씩하게 길러왔던 것

입니다. 번잡한 울지로 5가 거
리에서 골목으로 쫓 들어가, 아
늑한 주교동에 자리잡은 이 학
교는, 교육사업에 열렬하신 이
명우 교장 선생님, 교감 안 자
현 선생님 및 44 명의 선생님
지도하에, 2880명 어린이들이
나라 앞날을 위하여 배움의 길
을 탐고 있습니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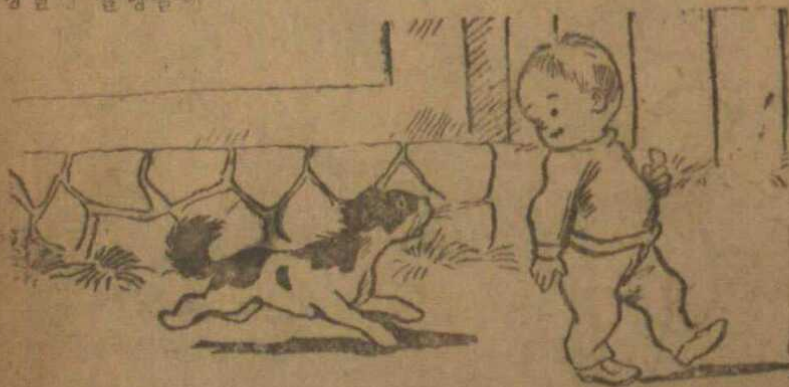
제8회 서울 방산 학교치

동요 아기과 바둑이

3의2 방 진 화

아장아장 걸음마는
우리 애기 걸음마
달랑달랑 방을 소린
바둑이 방을 소리
우리 애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행진하며는
달랑달랑 졸랑졸랑

바둑이가 귀를 다마요,
바삭바삭 과자는
우리 애기 먹고요.
즐것즐것 고기는
바둑이가 좋아해요.
우리애기 남남
과자 덕으린
바둑이가 귀각귀각
뛰어 올라요.



동요 삼일의 날

6현 김 해 정

압박받에 피흘리며 싸웠답니다.
조선독립 자유의날 부르짖으며
삼일운동 피흘리며 싸웠답니다.

억울하게 빼앗겼던 우리의 조국
포악한 일본정치 사슬 밑에서
당국의 슬픔을 벗어나려고.

우리들의 조상은 싸웠답니다.
가목한 피흘리며 용맹스럽게

오늘의 광명의날 맞이하려고.



작문 우리 선생님

4의2 김 현 중

우리 선생님은 참으로 재미
있고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넉적하고 환한 얼굴에 언제나
웃음을 가버들게 머우시면서,
재미있는 옛날 얘기를 자주 해
주신다. 그 때에는 어떻게든 재
미가 나는지 우리들은 허리를
뭇뭇 지경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나에
게는, 선생님을 뵈 때마다 돌아
가신 어머니를 뵈는 듯하여 만
것 어리광을 부리고 싶어진다.

아버지도 좋다. 그러나 왜 그
런지 나는 어머니 같은 우리 선
생님이, 나를 더욱 더 사랑하여
주시는 것만 같이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림을

잘 그리신다. 아마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선생님만큼 그림을 잘 그리시는 선생님도 안지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디를 가든지 동무만 보면 "우리 선생님이 그림에 서 이거야!"하

고 엄지손가락을 내밀며 자랑을 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나는 무엇보다도 우리 선생님께서 그림



을 잘 그리신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좋으신 선생님이 한번 화만 나시면 참말 기가막히게 무서우시다. 선생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은, 으레히 우리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동무를 지을러 했을 때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무서운 것보다도 고마운 생각이 더 든다. 우리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여 주시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후년에

도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다. 한 가지 항상 근심되는 것은, 선생님께서 대단히 몸이 약하신 것이다. 아마 우리들 때문에 너무도 속을 태우실까

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나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이불 속에서 "선생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고 마음 속으로 조용히 조용히 잊지 않고 인사를 한다. (끝)



이 명우 교장 선생님

방산 학교 교가

서울도 한복판에 퍼진 꽃동산
언제나 즐겁으로 모여 드는 곳
피로우나 즐거우나 힘을 합하여
아아 빛나는 우리 방산 새나라의 힘.

남산의 소나무는 우리의 기상
북악산의 굳센 모습 우리의 마음
공부에 운동에 힘을 다하여
아아 빛나는 우리 방산 새나라의 힘.

(장 주원 • 지음)



도화 5의2 김 세 평

무궁화꽃피는 나의 조국

습자 6년 진 인숙

동요 맛보기

(4) 박 영 중

탕긋한 어머니의 젖은 재처럼
계장가는 그리운 노래입니다. 저
벉 놀이 하얗게 삭아 가듯이, 우
리의 어릴 때 동무의 얼굴이며
술던 일은 모조리 아름아름하게
빛이 비려도, 입마나 누나가 어느
때 절 무렵에, 혹은 캄캄한 밤에
가랑가랑 하시던 그 자장가만은,
위에 젖어 언제나 가슴에 맺혀
있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하느님이 주시
는 바람이나 햇볕 속에 익어 가
듯이, 이런 아기들은 어머니나
누나의 자장가에 자라는지 모릅
니다.

방울 소리 절렁절렁 우리 아
기 재질네
나귀 모가지에 술방울을 달아
타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잘도 자
네 자장자장

삽살개가 쿵쿵쿵쿵 우리 아기
재질네
벼들벼들 강아지야 네가 와서
문짜라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잘도 자
네 자장자장

뽀뽀시지 뽀뽀시지 우리 아기
재질네
해바라기 꽃시지를 앞마당에
심어라
우리 아기 이쁜 아기 잘도 자
네 자장자장

(자장가 • 윤 석중)

어머니의 일심정성 조급조급
아기를 재우시지. 담 밖에 지나가
는 당나귀의 방울 소리조차 두려
워 하십니다.

“그놈 당나귀 술방울을 목에
달고 다니지 말고.”

꾸짖지. 하지만 당나귀야 어머
님 손을 알 리 있어야지. 신이
나서 그냥 절렁절렁 방울 소리만
흔들며 갑니다.

쿵쿵 짓는 삽살개도 뽀뽀뽀
우는 뽀뽀시제도, 아기의 잠을
덜들릴가 싶어, 어머니의 애를
대웁니다.

이 자장가에는 술소리조차 삼
가지는 어머니의 모양이 저절로
눈에 머 옵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초저녁 달을 보고 멍멍 짓다가
심심해 바두기도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아무리 불어봐도 소리가 안 나
성이나 나팔꽃도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모여서 소근소근 재송아들도
입들을 꼭 다물고 잠이 들었다

아가야 착한 아기 잠 잘 자거라
집 없는 잠자리도 풀잎에 앉아
눈물이 글썽글썽 잠이 들었다.

(자장가 • 윤 석중)

역시 윤 석중 선생의 자장가입
니다. 윤 석중 선생은 세살때 어
머님을 여이고 의조모님 손에
자랐나 합니다. 의물 의손자
를 맡아 기르시는 의할머니의
자장가는, 저절로 슬픈 가락
이 많았을 것, 그것은 어머
니 없는 소년인 윤 석중 선생
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 있을테
지. 그래서가 아니라 나는 이 자
장가가 어쩐지 슬퍼 되어 눈물이
펑 뚝니다.

바둑이도 나팔꽃도 재송아도,
그러고 잠자리조차 어딘지 모르
게 슬퍼 뽀뽀니다. 마치 응크리고
새우잠을 자는 어미없는 아이처
럼.

왜 슬퍼 뽀뽀? 오오라, 초저
녁 달을 보고 멍멍 짓는 바둑이,
그 바둑이는 동무도 부모도 없는게
지. 그러기에 멍멍 짓어도 깃어도
대답이 없는 달을 쳐다보고 깃
다가, 제풀에 흥이 풀려 심심한
대로 잠이 드는구나. 나팔꽃도
아무리 성이 난다 손치더라도,
달때주는 사람이 없는대로 잠이
들고, 재송아들은 모여서 소근소
근 애걸 하더라도, 그 애기조차
슬퍼서 입을 다물고 갑니다.

집 없는 잠자리도... 집 없는 잠
자리라 하니 언뜻 방 정환 선생
의 동요가 생각되지. 집 없는 잠
자리가 수수 마나님을 잡고 사
정을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수숫대 마나님, 하룻밤만 꼭
어가게 해 주세요. 네.”

그러나 인정 사정 없는 수수마
나님은 숙절 없이 거절합니다.

“수수마나님 가슴바람이 잘래

잘 곳이 없이 그러니 하룻밤 묵
어가게 해 주세요.”

그래도 수수 마나님이 고개를
보 돌리고 하룻밤 잠 자리를 빌
주지 않습니다. 잠자리는 눈
이 글썽, 어느 쪽은 울타리 밑
나 담벼락 위에서 쌀쌀한 바람
불리우는 책 새우장이 드는
데, 그 잠자리 날개에 부딪치는
람처럼 슬픈 자장가이지.

아기를 자장자장 재우시다가
엄마가 잠이 먼저 드셨습니다.
엄마 깃 만지면서 노던 아기도
스스로 잠이 그만 들었습니다.

(자장가 • 율 석중)

어머니는 온 종일 일이 고단하
니다. 그래서 아기를 재우시려
부르는 자장가에 어머니가 그
잠이 드십니다. 아기는 눈이 말
말통해서 저절로 자장가의 노
가락이 스스로 책이 풀려 가는
을 듣고 있지. 졸음겨운 엄마의
장가, 그것도 잊혀지지 않는
미운 노래입니다.

땡 땡 땡사리
땡사리는 한 살
울 울 울아기
울아기는 두 살

땡 땡 땡사리
이슬 먹고 자라고
울 울 울아기
맘마 먹고 자라고

땡 땡 땡사리
남새밭에 자라고
울 울 울아기
엄마 품에 자라고

땡 땡 땡사리
하늘만큼 자라고
울 울 울아기
지붕만큼 자라고

땡 땡 땡사리
땡사리는 한 살
울 울 울아기
울아기는 두 살

(땡땡 땡사리 • 율 복진)

땡사리는 일이 팔고 다육한 풀,
그 땡사리 풀처럼 소담한 어머니
의 사랑이 어린 노래입니다. 우리
아기는 엄마 맘마 먹고 자라지만,
땡사리는 하늘이 주시는 이슬 맘
마 먹고 자라납니다. 참으로 어
머니는 하늘 같으신 분이시. 넓고
아름답고 크고 아름다운 저 하
늘... 밤이면 자욱하게 이슬이 내
려, 어린 풀들을 기르는 하늘의
은혜는 헤아릴바 없지. 그 하늘이
만물에 큰 은혜를 베푸시듯, 그
처럼 아름다운 어머니의 은혜... 어
머니는 하늘 같으신 분입니다.

땡 땡 땡사리는
하늘만큼 자라고
울 울 울아기는
지붕만큼 자라고

얼마나 어머니의 사랑이 가늘
게 땡땡 없이 짝인 노래입니까!
그냥 어머니의 따스한 소원이 소
복합니다. 우리 아기는 더도 덜도
말고, 지붕만큼 자라 나가라 어머
니는 빕니다. 하얀 질으로도 이어
서 처마가 두툼한 그 낮우한 초
지붕, 아무리 낮더라도 사랑이 그
만큼 크기에는 아득한 것이지.
그 두툼한 초지붕 위는 하늘님의



☆ 돈

선생...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생도(갑)... 교육입니다.
생도(을)... 아닙니다. 돈입니
다.
선생... 어째서?
생도(을)... 돈이 있어야 학급비
후원회비를 내서 교육을 받
지 않습니까?
선생... (서울 창신교 6년 성
하정)

☆ 뒤에 눈이 없으니까

팔팔이... 뒤에서
자동차 소리
가나면 왜 뒤
를 돌아다 보
는지 아니?
복남이... 그것은
자동차에 치어 죽을까봐 그
버는 것이지 뭐야.
팔팔이... 아니야. 그것은 뒤에 눈
이 없으니까 보는거야.
복남이... ??? (서울 효제교
6년 권 영근)



☆ 누가 구두신가?

아버지... 용남아! 이웃집에 가
서 우산쯤 빌려 오너라.
(빌리며 갔다가 맨손으로 돌
아오며,)
용남이... 우산이 없다고 안빌려
줘요.



아버지... 참 지
독한 구두치로
군. 그럼 우리
우산대오너라.
(서울 일신교
5년 탁 동필)

자지. 그 초저녁 어머니의 마스한 사랑이 은은히 내려오는 어머니의 자지. 그러니 우리 아기는 초저녁만큼 자라 나가라 하사지.

× ×
 자거라 자거라 우리 아가야
 눈 감고 꿈나라 어서 가놀자
 엄마는 실버를 너는 퍼플새
 춤 추며 노래로 즐겁게 놀자.

자거라 자거라 우리 아가야
 눈 감고 꿈나라 어서 가놀자
 엄마는 이슬비 너는 진달래
 달콤 속 선녀를 손벽 칠단다.
 (자장가 • 희 수복)

엄마는 실버를 너는 퍼플새가,
 얼른 보아 밝은 포현 같으면서 또
 리어 생각하면 역시 좋은 대목이
 지. 장물에 스치도록 실질이 늘
 어질 초록이 같은 실버를 나무,
 그것은 어머니의 길고 마스한 사
 랑이시지. 그 길은 어머니의 사
 랑 속으로 날아 드는 노란 퍼플
 새는 곧 우리 아기지.

엄마는 가랑비, 아기는 진달래
 라는 것이 더 재미나는 포현입니
 다. 진달래꽃 가지 위로 물이 오
 는 아득한 가랑비발, 그 간결 간
 려하여 살은 살은 날아오는 헤아
 릴 수 없는 많은 가랑비발처럼
 아득한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가랑비발처럼 물이 오는 속에,
 파랑비에 젖는 진달래처럼 때때
 뉘 웃고 있는 아기. 얼마나 어
 머니의 사랑이 가득한 자장가입
 니까!

! 해바라기 그림자가 울 너머 가고
 초저녁 별 영상에 살고 앉았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야
 자장자장 자장자장 잠 잘 자
 거라

하늘나라 아가가 무지개 타고
 오색 실에 비단꿈 꿰어서 온다
 자장자장 자장자장 우리 아가
 야
 자장자장 자장자장 잠 잘 자
 거라

(자장가 • 윤 복전)

길고 더운 여름 해도 기울고
 해바라기의 그림자가 울 너머 갔
 습니다. 그런 너그러운 해질 무
 념에, 초저녁 별 (초저녁이란 말
 도 예쁘지) 그 때로 때룩한 초록
 별이 영장 너머로 눈을 듭니다.
 아기가 자나 어쩌나 녀 불려는지
 지. 그럴 아기는 가만히 눈 가운
 데 감아 두었던 파란 실구리의 실
 을 풀어 별에게 보냅니다. 그 한
 풀이 별에 다오면 별에서도 파란
 실이 풀리 옵니다. 그 색실을 타
 고 들음과 꿈과 선녀가 오는 것
 이지. 그래서 아기는 가만히 꿈
 나라로 건너 갑니다.

× ×
 자장자장 자장나리
 파랑새도요
 코록코록 녹두 발에
 환삼 자는데
 포록 눈 포옥 감고
 환삼 자는데
 자장자장 자장자장
 포옥 자거라

자장자장 자장나리
 파랑새도요
 코록코록 녹두 발에

별새 잤는데
 포록 눈 포옥 감고
 별새 잤는데
 자장자장 자장자장
 포옥 자거라

(자장가 • 박 영종)

이 자장가는 내가 지은 것이
 다. 파랑새 녹두 발이 나오지 않
 습니까. 그 파랑새와 녹두 발은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¹

(옛날 노래)

이 옛날 동요에서 얻은 것이
 다. 파랑새와 녹두 발은 무슨 절
 은 인연을 옛날 옛날 처음으로
 타느님이 파랑새를 만드시는 그
 날부터 가진 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장가 첫절과 둘째
 절은 "환삼"과 "별새"이 두마디
 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요
 게 그 뜻을 달리했지, 자세히 살
 피 봅시다.

귀암귀암 잘 자는
 우리 아기는
 바람에도 꿈에도
 줄음 온다오.

자장자장 잘 자는
 소록잠은
 흰 나비가 찬 오리
 물이 온다오.

오름오름 잘 자는
 우리 아기는
 눈썹에도 귀에도
 줄음 댕어오.



자장자장 잘 자는
소독잠은
은 별님이 한 오티
보내신다오.

(자장가 • 박 영중)

지면 (紙面)이 없어 설명은 때
로끼 귀 소독소독
잠이 들고
엄마 로끼 소오록

잠이 들고
애기 로끼 꼬오박
잠이 들지요.

(로끼의 잠 • 박 영중)

엄마 로끼가 아기 로끼를 재웁니
다. 엄마 로끼는 오늘 낮에 도도
티를 줄네, 물을 걸어 나오시네,
여간 고단하시지 않겠어. 그래서 아
기를 재우신다면서 도리어 자기가
엄침 잠이 드셨읍니다. 잠 오는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록

소록, 소오록, 꼬박이지. 왜 소록
소록이나 하면, 로끼의 그 긴 귀
끝까지 출습이 울러면 상당단
더던 시간이 걸리게 되지. 허니
소록 소록 소록... 이렇게 한참 등
안 잠이 오게 됩니다. 허지만 엄
마 로끼는 자기도 모르게 그만소
오록, 이렇게 잠이 옵니다. 그러
고 아기 로끼는 두 눈이 초롱 초
롱하니 놀다가 잠이 들려면, 금시
에 꼬박, 한꺼번에 답삭 들어 비
러니 꼬박이지. —계속—



少年三国志

(12)

박 태 원 · 김 기 창 그림

제 9 장 서서(徐庶)와 그 어머니 (2)

三, 번성에서

번성현령(樊城縣令)은 유 필(劉泌)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도 역시 한길 종친이다.

현덕이 크게 이기고 군사들을 거느리어 성으로 들어 가자, 유 필은 광망히 나와서 정중하게 그를 맞았다.

주인이 청하는대로 연식에 나아가 술잔을 기울이던 현덕은, 문득 한 젊은이가 유 필의 곁에 모시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구요?”

“네, 제 조카 구 봉(寇封)입니다. 일찍이 부끄를 여의고 제게 와서 있는 터입니다.”

현덕은 구 봉이 사내답게 생긴 것을 마음에 사랑하여, 유 필에게 말하고 곧 자기의 아들을 삼았다.

이리하여 구 봉은 이날부터 생을 고쳐 유 봉(劉封)이라 일컫는다.

현덕이 유 봉을 데리고 관사로 나와, 운장과 일덕에게 차례로 절하여 뵈지 하자, 운장은

말하였다.

“형님이 슬하에 아들을 두셨으며, 구태어 또 어복아들은 두려고 하십니까? 뒤에 좋지 않은 일이 있고야 말지요.”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나만 저를 친자식처럼 대하면, 저도 나를 친아비 같이 섬길 터인데,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겠다고 그러느냐?”

그래도 운장은 중시 마음에 탐탁히 여기지 않는 모양이었으나, 현덕은 더 말하려 하지 않고, 조 운에게 일 천명 군사를 주어 번성을 지키게 한 다음, 자기는 단 복과 관우·장비로 더불어, 나머지 군사들을 거느리고 실야로 돌아 갔다.

四, 서서의 어머니

이 전과 함께 감실히 목숨을 도망하여 허도로 돌아간 조 인은 조 조 앞으로 나가자 땅에 엎드려 울며 싸움에 지고 온 죄를 청하였다.

그러나 조 조는,

“싸움에 이기고 지는 것은 온

히 있는 일이다. 이번에 패를 보기가 어찌 너 한 사람만의 잘못이겠느냐?”

좋은 말로 위로한 다음, 그는 다시 은근히 물었다.

“그는 그러하거니와, 대체 유 비 수하에 누가 있어서 그러한 계책을 내었다던?”

조 인이 아뢰다.

“저희가 돌아 오는 길에 온 사람들에게서 들었는데, 단 복이라나 하는 사람이 유 비의 모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 조는 좌우를 돌아 보고 물었다.

“단 복?... 단 복이란 대체 누구일까?”

이 때 모사 정 옥이 웃으며 대답한다.

“그 사람이 실상은 단 복이 아닙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갈 쓰기를 좋아하더니, 일찍이 남의 원수를 갚아 주느라 사람을 죽이고, 곧 번성명(姓名)한 다음에 누무 높은 스승을 찾아서 학업에 힘썼습니다. 일찍부터 수정실성사마 휘와 가까이 지내는 터이니, 그는 곧 영주(穎州)사람 서서(徐庶)로 자는 현직(元

面)이라 하지요.”

조 조는 다시 물었다.

“그때 서 서의 재주가 군에게 비하여 어떠하오?”

정 옥이 대답한다.

“저보다 십배나 낫습니다.”

그 말을 듣자 조 조의 입에서 는 저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 나 왔다.

“그러한 어진 선비가 유 비 를 가서 도운다니 이를 장차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렇나 정 옥은 다시 입을 열

어, “서 서가 비록 지금 유 비에 계로 가 있기는 하지만, 만약 승상께서 꼭 그를 쓰시겠다

면, 저를 불러 오기는 과히 어렵지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불러 온단 말 이요?”

“서 서는 본래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지금 젊은 어미 하나만 있을 뿐인데, 요지 음 그 아우가 죽어, 아무도 봉양(奉養)할 사람이 없는 처지 지요. 이제 승상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어미를 속여 이곳 하도까지 오게 하시고, 저 더러 편지를 써서 그 아들을 부르게 하시면, 서 서가 아니 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조 조는 마음에 크게 기뻐, 곧 사람을 보내서 서 서의 어머니를 배 려 오게 하였다.

그가 마침내 하도에 이르자, 조 조는 예를 극진히 하여 대접한 다음에 말 하였다.

“아드님은 왕으로 천하에 드문 재주라 하겠는데, 이제 역신(逆臣) 유 비를 섬겨 조정을 배반하니, 이를 배 딴 아들다

운 옥이 전출 속에 묻힌 것 이나 일반이라, 이 어찌 애석한 일이 아니겠소? 이제 수 고를 아끼지 말고 편지 한장 단 써서 아드님을 이곳으로 불러 온다면, 내 천자에게 말해 드리고 상을 후히 내리시게 하리다.”

말을 마치자 곧 좌우에 명하여 문방사보(文房四寶)를 가져 오게 하니, 이를 보고 서 서의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묻는다.

“내 자식이 가서 섬긴다는 유 비란, 대체 어떠한 사람 인가?”

조 조는 웃고 대답하였다. “매군(沛郡) 조그만 고을의 자리나 짜고 쫓신이나 삼던 천천 백성으로, 제 입으로는 외람되지 한질 종친이라 하지만, 도무지 선의(信義)라고 는 없는 자이지요.”

그러나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서 서의 어머니는 소리를 가다듬어,

“네, 이놈! 누구를 속이며 고 그러느냐? 내가 들으니, 유장군으로 말씀하면 당당한 한질 종친으로, 마음이 어질고 덕이 높은 당대의 영웅이시 라더타. 내 자식이 그 어른 을 가서 섬긴다면 이는 주인 을 바로 얻었다고 하겠다. 너로 말하면 이름은 비록 활 나라 승상이나, 실상은 역적 놀이 도리어 유장군을 역신 으로 불러 든단 말이나?”

한바탕 꾸짖고 나자, 그는 눈 결에 벼룩들을 집어 들고 조





조를 치러 한다. 조 조가 딸근 노하여, 무사를 꾸짖어 그의 목을 베어 오라고 할 때, 정 옥이 황망히 앞으로 나와서 그것을 말리고, 다음에 가만히 조 조에게 고하였다.

“만약에 승상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오직 의(義)로움지 못하다는 공은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또 그보다도 서 서가 저의 어미의 원수를 갚으려 함으로 목숨을 걸고 유 바를 도울 것이니, 어찌 걱정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대로 두어 두시면, 서 서가 몸은 비록 유 바에게 있어도 마음은 항상 저의 어미를 생각하여, 설혹 그때로 유 바를 살건다 하더라도, 제 힘을 다하지는 못할 것이요, 또 그러는 동안에는, 자연 좋은 제책을 띄워서 서 서를

불러다가 상을 모시도록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 조는 그 말을 옳게 생각하여, 서 서의 어머니를 죽이지 않고, 별실(別室)에서 거처하게 하였다.

그 뒤로 정 옥은 거의 매일 같이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서 서와는 전에 형

제의 의를 맺은 일이 있다고 거뭇말하여, 흡사히 친어머니를 대하듯 하며, 또 때때로 갓은 물건을 보내는데, 그 때마다 받드시 편지를 함께 전하였다.

서 서의 어머니는 그것이 무서운 제책에서 나온 일인줄을 꿈에도 생각 못하였다. 그때, 그는 정 옥에게서 온 편지에 대하여 번번히 자기도 회답을 써서 보냈다.

정 옥은 곧 서 서 어머니의 필적(筆蹟)을 본떠서 한봉의 위조편지를 만들고, 사람을 시켜 실야로 가서 그것을 단 복에게 전하게 하였다.

단 복……곧, 서 서가 받아서 보니, 그 글에는 대장 다음과 같은 사연이 적혀 있다.

“너는 멀리 나가고, 또 내 아

우는 죽고 하여, 의지 없는 늙은 몸이 배양 눈물로 날을 보내더니, 뜻밖에도 조 승상이 나를 허도로 잡아다가, 네가 친자를 배반한다 말하고 나를 옥에다 가두려 하는 것을, 정 옥의 무리들이 힘써 구하여 우선은 화를 면하였으나, 만약에 네가 끝끝내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에 죽기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 네가 만약 어미 생각을 하거든, 부디 이 편지 보는 길로 곧 달려 와서 조 조를 온전히 한 뒤에, 차차 고향으로 돌아 갈 길을 구하도록 하여라. 내가 지금 목숨이 위태롭기 비할대 없어, 오직 너의 구원만 바랄 뿐이요, 총 총 이만 그친다.”

편지를 보고 나자 서 서는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는 즉시 편지를 들고 현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저는 본래 단 복이 아니라, 영주 태생 서 서로 자는 원적이라 합니다. 이제 늙은 어미가 조 조의 간계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웁다 하니, 어찌 아비가 불 도리가 있겠습니까? 모처럼 주공을 모시고 있으려 하던 노릇이 중도에서 이처럼 더나게 되어, 참으로 비감하기 짝이 없사오나, 뒷날에 다시 뵈옵거나 기약할 밖에 없이 되었읍니다그려.”

말을 듣고 나자 현덕은 우선 크게 놀라고, 마음에 또 크게

울었다.

“자당께서 것처럼 육을 보고
제신 터에, 선생이 어찌 이
태로 있어 되겠소? 내 생각
을당 아예 말고, 어서 가서 외
우시오. 우리가 인연이 있다
면 일후에 다시 만나십시오.”

서 서의 마음은 한시가 바빴
다. 그는 그 길로 곧 떠나려 하
였으나, 현덕은 부더 하룻밤만
머뭇고 가라고 소매를 잡는
다.

이때, 손 긴이 들래 현덕을
보고 말하였다.

“서 선생은 참으로 천하의 기
재(奇才)입니다. 그 공안 선야
에 있어 우리군중(軍中)의 온
갖 기밀(機密)을 모조리 안
터에, 이제 조 조에게로 가
게 두세다니 뉘번이나 한 말
씀입니까? 주공은 꼭 불드시
고 결코 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 오지 않는 것을 보면, 조 조
는 필시 그 모친을 죽이고야
말 것이니, 그렇게 되면 서
선생은 그 원수를 갚으려, 함
을 다하여 조 조를 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덕은 머리를 내켜
으며 말하였다.

“그것은 옳지 않은 말이요,
남의 손을 빌어서 그 어미를
죽이고 내가 그 차취를 쓴다
면, 이것은 어쩔지 못한 일이
요, 불들어 두고 가지 못하
게 하여 남의 골육(骨肉)의
정을 끊는다면, 이것은 의로
울지 못한 일이니, 내가 차
타리, 죽으면 죽었지, 절
지 못하고 의로울지 못한 일
은 아니하겠소.”

이 말을 듣고 감탄 아니하는
이가 없다.

현덕은 곧 잔치를 베풀고 서
서를 청하였다.

그러나 그 날 술자리는 조금도
즐거울지 않았다.

“늙은 어미가 지금 조 조에게
잡혀 있는 것을 생각하니,
이 술이 부구명을 넘어 가지
않습니까그려.”

서 서는 그렇게 말하였던 것
이나, 생각은 매일반인 현덕이
었다.

“선생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떠난다 하니, 마치 팔다리를
잃은 것 같아서, 음식이 도
무지 입에 달지가 않소그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바라모
고 앉아서 울며 그 밤을 그대
로 밤냈다.

그 이튿날, 현덕은 서 서를
보내느라 멀리 성 밖까지 나갔
다. 정자(亭子)에 이르러 마지
막으로 다시 한잔 술을 권하며
현덕은 말하였다.

“내가 복이 없어 선생을 버



물리 있게 못하는구로. 가지 거든 부더 새주인을 잘 섬 거서 크게 공명을 이루도록 하시오.”

그 말에 서서는 울며 대답 하였다.

“제가 비록 늙은 어미를 찾아 조 조에게로 가기는 하나, 이것은 부득이한 일입니다. 설혹 조 조가 제 아무려 저를 핍박(逼迫)한다 하더라도, 저는 맹세코 그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생각합니다.”

“설생이 떠나실 뒤에는 나도 그만 세상을 버리고 깊이 산 속으로나 들어 가서 숨을까로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더 달리 높은 설바를 구하시어, 함께 철하를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에 선생보다 더 나은 이자 어디 있겠소?”

“그것은 저에게는 불수에 넘치는 말씀입니다. 저 같은 용렬한 제주야 특히 이를 것

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서서는 현덕의 수하 장수들을 돌아 보고,

“공들은 부더 주공을 잘 섬기어 이름을 후세에 빛내도록 하시오. 결단코 이처럼 시종(始終)이 없는 나를 본받치지 마오.”

마침내 서서는 눈물을 뿌리고 떠났다. 그 뒷모양을 현덕은 나무 그늘에 서서 언제까지나 바라본다.

그러자 문득 서서가 가다 말고 말머리를 돌리어 도로 이쪽으로 달려 온다.

그것을 보자 현덕은 자기도 분주히 말을 달려 앞으로 나가서 맞으며 물었다.

“산쌍어 가지다 말고 돌아오시내 필연코 깊은 뜻이 있으신가 보오.”

서서는 대답한다.

“제가 마음이 산란하여 그만 할 말씀을 잠밖 잊었습니다. 양양성 이십리 밖에 참으로 제주가 비상한 선비 하나 있으니, 주공께서는 부더 좃

아가 보십시오.”

현덕은 말하였다.

“과연 그러하다면 선생은 한 번 수고를 아끼지 말고, 나를 위하여 그 사람을 청하여 오시오.”

그러나 서서는 머리를 내저었다.

“그 사람은 결코 함부로 불러다 볼 사람이 아닙니다. 부더 주공께서는 몸소 가서서 청하십시오. 만약 그 사람 하나만 얻으신다면, 천하 바로 잡으시기를 무어 근심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선생과 떠나서 재덕(才德)이 어떠하오?”

“원, 어떻게 저 같은 위인에게다 비하겠습니까?”

제가 노문(魯鈍)한 말이라도 그는 거연(獻)이요, 제가 보잘 것 없는 가마귀라든 그는 몸 봉황(鳳凰)입니다. 이 사람이 배양 자기 몸을 관중(管仲)·악 의(樂毅)에게 비하고 있으나, 제

고마 상식

불에 태었을 때는?

주위가 닳쳐 오면 자연히 불과 가까이 하게 되는 까닭에, 손이나 혹은 발을 태 때 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는 응급치료(應急治療)로 기름을 빨리 바르면 좋으며, 이 때

살균력(殺菌力)을 가진 약자름이면 더욱 좋지요. 자름에는 테루마유(油), 와제린, 참기름, 오리야부유, 또는 바타아 등, 아무 것이나 괜찮으니까, 많이 들복 칠하십시오. 만약 물집이 생겨 부풀어 오른 경우엔, 바늘 끝을 잘 소독하여 가지고 물집을 뚫는다. 그리고 물을 다 빼면 다음에 기름을 바르십시오. 당황하여 급하다고 물 속

에다 담그는 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금속(金屬)으로 인해서 태웠을 때는, 맨 언저리는 비록 딱딱할지라도, 살의 조직(組織)이 같이 상했으니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이나 증기(蒸氣)에 태웠을 때는 꼭 아프지만, 그 때는 생두부를 꼭 짜서 물기를 없애고, 종이 두장 사이에서, 5mm 가량의 두께로 펼쳐서 그것을 맨 데다 없어서 치매면 됩니다.

자 보기에는 관중·악의도 시 사람을 따르지는 못할 것이니, 그는 참으로 경천위지(經天緯地)하는 재주를 가져 실로 천하에 오직 한 사람 뿐인 것입니다.”

“아니, 대체 그 사람이 누구란 말씀이요?”

“네. 그는 곧 남야 양도(襄陽都) 사람 제갈 량(諸葛亮)이니, 자는 공명(孔明)으로 그 아우와 더불어 남양(南陽)에서 밭 갈며, 스스로 도호(道號)를 지어 와룡선생(臥龍先生)이라 합니다. 그야말로 천하에 짝이 없는 기재(奇才)이니, 주공께서는 한시 바삐 찾아가 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만 얻으신다면, 참으로 천하를 바로잡으시기가 어렵지 않사오리다.”

“전날에 내가 수경선생을 만나 뵈었을 때, 와룡·봉추 두 사람 가운데 하나만 얻으면 천하를 편안히 하리라 하더니, 그럼 지금 말씀한 이가 바로 와룡·봉추요?”

“봉추는 양양 방 통(襄陽龐統)이요, 와룡이 바로 제갈 공명입니다.”

듣고나자 현덕은 기쁨이 비길 데 없었다.

“아, 오늘에야 비로소 와룡·봉추가 누구지름 알겠소 그려. 그러나 선생이 일러 주시지 않았더라면, 것처럼 어진 이를 바로 눈 앞에 두고도 나는 등시 모르고 지낼뻔 하였소.”
이렇듯 제갈 공명을 현덕에게

천거한 뒤, 서 서는 다시 말을 달리어 허도로 갔다.

서 서가 이른 것을 알자, 조 조는 순 옥·정 옥 등 모든 모사들에게 명하여 나가서 영접하게 하였다.

아유크고 서 서가 그들을 따라 서 승상 부중으로 들어 와 보인 다.

조 조는 그에게 말하였다.

“공은 고명(高明)한 선비로서, 어찌하여 유 비 같은 무리를 섬겼단 말어요? 자당께서 지금 배제 미물러 계시

니, 공은 이제부터 이곳에 있어 조석으로 바쁘어 모시도록 하오.”

서 서가 그의 샅을 물러 나와 모친을 뵈옵고 섬들 아래 옆드러 울자, 그 어머니는 뜻밖의 일에 놀라서 물었다.

“네가 대체 여기는 무슨 일로 왔느냐?”

서 서가 대답한다.

“제가 실야에서 유장군을 섬기다가 뜻밖에 어머니님 하사(下書)를 받자옵고 이처럼 밤을 도와서 온 터입니다.”
듣고 나자 그 어머니는 크게



동요 노란닭 하얀닭

윤 일 주

이웃집엔 이웃집엔 노란암탉 한마리
우리집엔 우리집엔 하얀암탉 한마리

노란암탉 날마다 노란알 낳고
하얀암탉 날마다 하얀알 낳고

하루는 우리집 똥우리에
노란알 하얀알 나란히 있었겠다.

아하
이웃집 노란닭이 넘어 와 낳았구나.

나는 곧 이웃집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지요.



그림·정 현웅

노하여 손으로 책상을 치며 꾸
짚었다.

“네가 그 사이 여러 스승을
찾아 다녔다고 하기에, 나는
너의 학업이 전보다 많이 늘
었으리라 믿었더니, 이제하여
전보다도 오히려 못하단 말
이냐? 그래 한조각 위조 편
지에 속아서, 모처럼 옮겨 열
은 주인을 버리고 역신(逆臣)
조조를 찾아 오더니…… 조
조의 이름을 더럽히는 너 같
은 자식을, 나는 부번도 보고
싶지 않다! 썩 물러 가져
다!”

할바탕 구짚기를 마치고 그
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뒤에
도, 서 서는 그대로 땅에가 있
드린 채 고개를 못들더니, 얼
마 있다가 안으로져 사람이 뛰

어나오며, 노부인이 들보에 목
을 내어 자결(自決)하였다고
일터 준다.

서 서는 소스라치게 놀라,
죽시 안으로 뛰어 들어 가 보
았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서 서는 그대로 목을 놓아 울
었다……

소년 삼국지 어려운 말 풀이

▲변성명(變姓名)…… 성명을
달리 고치는 것.

▲봉양(奉養)…… 부모 조부
모를 바들어 모시는 것.

▲역신(逆臣)…… 역적(逆賊)
과 같다. 반역(叛逆)을 피한 사
람.

▲문방사보(文房四寶)…… 종이
와 붓과 먹과 베풀.

▲신의(信義)…… 믿음성과 의

다.

▲별실(別室)……편 방.

▲자당(慈堂)…… 남의 어머
니를 높여서 하는 말.

▲기밀(機密)……중요하고 비
밀한 것.

▲골육(骨肉)……부자 형제의
사이.

▲매일반……일반(一般)과 간
차. 다찬가지. 한 모양.

▲시종(始終)……처음부터 끝
까지의 사이.

▲재덕(才德)……재주와 덕행
(德行).

▲노군(魯鈍)……미연한 것. 1
재주가 둔한 것.

▲관중(管仲)악 의(樂毅)
…중국 전국시대(中國 戰國時
代)의 뛰어난 인물들.

▲경천위지(經天緯地)……진
리를 경률하여 다스릴만한 것.

▲고명(高明)……고상(高尚)
하고 현명(賢明)한 것.

▲하서(下書)……어른이 수
신편지.

▲자결(自決)……제 목숨을
제 손으로 끊는 것.

○ 오락실 해답 ○

① A역에서 80명이 있음.

② 연소·종이 배터전·미꾸라지

곰·언어 완성이…등근

★ 기다리시던 아톰 책 ★

꿈나라의 아리스

그림·정 현웅

책값 80원 · 책사마다관
고있습니다

애독자 아합 상라기

☆바른 대답과 뽑힌 분☆

- ① 노랄게 물 든 가을이 왔다는 사면. 그 래서 감도 익고 124 개나 열었다고
- ② 소설 "봄의 노래" 속에서 형태가 말했 음.
- ③ 새도 나무 가지를 가려서 안는다.

1등 10명

- 장 유석(서울 청계교 6년)
- 김 현순(서울 돈암교 6년)
- 이 정숙(연백 수화교 6년)
- 명 현기(서울 아현동 545)
- 김 천근(서울 영희교 5년)
- 김 경순(강화 신원교 4년)
- 안 병욱(서울 수송교 4년)

- 고 기명(서울 종로 5가 125의2)
- 최 현국(서울 구학교 5년)
- 박 을용(전북 남원 운봉 교 4년)

2등 30명

- 한 근석(양주 금곡교 4년)
- 박 찬국(수원 매산교 5년)
- 김 동환(청주 주성교 6년)
- 김 중근(서울 창경교 3년)

- 김 장수(부산 초량교 5년)
- 김 상규(수원 우정교 6년)
- 박 선재(계성 만철교 5년)
- 최 중만(수원 우정교 6년)
- 왕 은식(서울 협성교 6년)
- 박 영숙(인천 송림교 3년)
- 박 정희(부산 도성교 6년)
- 조 본용(시흥 안양교 5년)
- 김 선경(인천 서림교 6년)
- 성 도경(서울 용산교 5년)
- 정 훈모(서울 창경교 6년)
- 문 재욱(시흥 안양교 5년)
- 최 철수(서울 남대문교 3년)
- 이 은환(서울 효제교 5년)
- 민 정숙(서울 돈암교 4년)
- 권 오영(경기 수색교 6년)
- 권 오영(서울 집경교 6년)
- 김 인철(서울 해회교 4년)
- 김 영수(서울 용산교 2년)
- 김 현순(서울 수송교 4년)
- 이 상갑(서울 송인교 5년)
- 이 심창(서울 종로교 5년)
- 황 복남(서울 창신교 5년)
- 이 규열(서울 해회교 6년)
- 배 은중(서울 김계교 6년)
- 김 영식(서울 효제교 4년)

★바로 맞추신 분이 많아 제비를 뽑아서 등 수를 결정한 판자로, 맞 은 분도 뽑히지 못한 분 이 있으나 널리 양해하 여 주십시오. (편집실)

2월 1일 전국 일제 발매

아동연감

서울 鍾路1街60 東邦文化社 發行
책값 500 원

바야흐로 봄오리 짝 드리는 새 나라의 꽃이요 힘인 어린이 여러 분에게 드리는 새해의

선물! 새해 여러 분이 꼭 지 녀야 할 책임입니다. 어린이 여 러 분의 지식의 보고(寶庫)!

장식의 대전(大典)!

중요 목록

- (1) 우리 나라·다른 나라
 - 1 우리 나라의 넓이
 - 2 각 도세 일람
 - 3 각국의 넓이
 - 4 여러 나라의 인구
 - 5 세계 그림 지도
 - 6 세계의 높은 건물, 큰 해 양, 큰 강, 큰 폭포
- (2) 세계 정세
 - 1 세계 각국의 정세표
 - 2 각국 정부의 수반
 - 3 국제연합의 기구 조직표
- (3) 역사

- 1 우리 나라 국토의 변천
- 2 역사상의 중요 인물
- 3 역대 연표(歷代年表)
- 4 세계 역사 지도
- (4) 정치
 - 1 정부의 내각 일람
- (5) 과학
 - 1 천문학상의 중요한 발견
 - 2 물리학상의 중요한 발견 과 발견

- 3 화학상의 중요한 발명과 발견
- (6) 상식
 - 1 노오벨상 수상자 일람
 - 2 동물의 수명
 - 3 속도 비교
 - 4 높이 비교
 - 5 국제 올림픽 경기
 - 6 역대 유명한 시조(時調)
 - 7 해방의 정위
 - 8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정 세 변천



★재미있는★

셈공부

기차에 탄 사람 수호 맞추기

A 역으로부터 종점(終點) X 역까지 가는 동안에는, 6개의 정거장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A 역에서 떠난 기차가, 다음 정거장에서, 타고 있던 손님의 반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6명의 손님이 탔지요. 그러므로 다음 역에서도 탔던 손님의 반이 내리고 5명이 새로 탔습니



다. 세번째에도 또 반이 내리고 4명이 새로 타고…… 이와 같이 각 역마다 탔던 손님의 반이 내리고 새로 타는 손님의 수는 하나씩 줄고, 여섯번째 역에서는 반이 내리고 한 사람이 탔을

니다. 그런데 종점 X역에는 다섯명이 도착하였습니다. 자아! 여러분, A 역에서 대체 몇명의 손님이 있었는지요? 3분 이내에 맞춰 보십시오. (정 모르시면 46페이지에)

(문) 칙칙박

사 할아버지 신년 새해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어려운 문제

푸느라고 흰 머리가 더 늘었지요? 그럼 준비하십시오. 지난번에 내 동생더러, 40쪽짜리 전구(電球)와 60쪽짜리 전구를 사오라고 해서 쳐보니까, 둘다 똑같은 정도로 밝았습니다. 무슨 까닭에 같은가요? (서울 창신교 6년 왕 은식)

(답) 파세 잘했나? 한 살 더 먹었으니 문제도 좀더 어려워야 하느니, 아마 전구 둘이 다 끊어졌단게



로군 그래. (칙칙박사)

(문) 칙칙박사 신년 새해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얼마나 문제 푸시기에 바쁘셨는지요. 자아! 준비. 제 배를 끊어 걸 달는 것이 무엇인지요? (서울 창신교 6년 성 하청)

(답) 허허! 좀 까다롭군. 그래도 나니깐. 그것은 바느질하는 것. (칙칙



박사)

(문) 박사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올해

도 일년내 골려 드리겠습니다. 한 살 더 잡수셔서 늙으셨으니까, 일명편박사가 되거나 않으실는지? 무슨 피붙인지 팔도 없고 눈도 없고 다리도 없고 물렁이만 있는데, 골은 가늘고 단하나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 일인지 하얀 것을 먹으면 도로 트라니, 대체 무엇인지? (서울 창신교 6년 유 현수)



(답) 바늘일테지…… (칙칙박사)

(문) 새해 문안 여쭙니다. 박사할아버지 올해도 땀좀 빼십시오. 그럼 문제도, 나아가면 지고, 뒤로 물러가면 이기는 것은? (서울 일설교 5년 탁 종철)



(답) 땀좀 빼라기에, 나는 또 얼마나 어려운가 했더니 어보게 정신차리게. 운동회 때 자내가 환개로군? 줄다리기를. (칙칙박사)



★ 새해 선물 ★

다이아몬드 게임 노는 법

다이아몬드 게임은 세 사람이 하는 놀인데, 말판 모양이 다이아몬드 같이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뛰어 넘기 놀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준비와 도구 • 말판과 말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새해 선물로 가져드린 말판과 말을 상자갑 같은 두꺼운 종이에 멀어지지 않게 꼭 붙이고, 풀이 다 마른 뒤에 말을 한개씩 따로따로 올리십시오. 같은 색깔 말이 15 개씩 될 것입니다.)

노는 법 • 먼저 세 사람이 장전으로 차례를 정한 다음, 각각 같은 빛 말 15 개씩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가진 말과 같

은 빛 세모(자기 집) 속 까만 점 위에 전부 늘어 놓습니다. (말을 늘어 놓는 세 모 집은 서로 하나씩 걸러서 정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말판을 가운데 놓고 뺨 둘러 앉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먼저 정한 차례에 의해서 둘러싸며 말을 한개씩 앞으로 옮겨 놓아서, 제일 먼저 말을 모두 맞은 편에 있는 자기 곁에 들어 놓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는 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이 있으니, 이것을 꼭 지켜야 합니다.

① 앞에 아무 것도 없을 때에는, 까만 점 하나씩 밖에는 옮겨 놓지 못하지만, 만일 바로 앞에, 자기 말이든 남의 말

이든 한 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단번에 두 발을 가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 또 한 개가 있으면 또 뛰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앞에 한 발 걸러서 한 개씩 죽 있으면, 몇 번이고 계속해서 뛰어 넘어 갑니다. 그러나 앞에 말이 두 개 이상 나란히 있을 경우에는, 뛰어 넘어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라는 것은, 어느 말이나 상관없이 넘어 가져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두개씩 나란히 놓이게 하는 것이 이쪽에 유리합니다.

② 남의 집 속에는 내 말이 한 발이라도 들어 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세 모의 양쪽 구석 발에만은 놓을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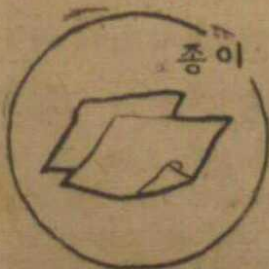
③ 말은 전대로 뒤로 물러 가지는 못합니다. 꼭 앞이나 옆이나 비둘은 옆으로 나가야 합니다.

☆의 견보기☆

무엇을 먹을까요?

아래 동그라미 속에 네 마리의 짐승과, 그 짐승

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짐승이 어느 것을 먹을까요? 1분 이내에 대답해 보십시오. (해답은 46 페이지에)



여러분! 거
리에서 설은 이
야기의 꽃다발
을 모 집합니다.
보고 아릅답다
고 느낀 것, 본받을만한 것이
라고 생각된 것, 또는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은 것 등, 아무 것



이나 거리는지
학교에서 보고
느낀 것을 적
어 보내십시오.
재밋고도 유익

한 것은 이 "등불" 란에 실려
드리겠습니다. (편집실)

★ ★

※ 소학생 구락부 ※

△우리 나라 어린이를 위하여
일하시는 "소학생" 편집부 여러
선생님! 새 해 안녕하십니까? 12
월치의 "소학생" 의 새모습 레코
를 읽고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작성님들! 얼마나 주우실테 수
고를 하십니까? "소학생"을 받
아 볼 때마다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하여야 좋을지.....그러면
1월치 "소학생"이 빨리 나오기
를 기다리면서, 안녕히 재십시오.
(서울 천성고 6년 왕 은식)

▲"소학생"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선생님들 평안하십니까?
처음 뵈겠습니다. 저는 삼척고 6
년인바, 삼년째 "진장열"이라는
병으로, 상급학교도 못가고 그대
로 6학년 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도 수집권을 받아오나, "소학
생"만큼 좋은 책이 없습니다. 그
런데 하나 청을 드리겠습니다.

"소학생"을 상 하로 해서, 한 달
에 두 권씩 내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후로는 낱갈박사 처적박
사를 많이 보내겠습니다. 그러
면 몸조심 하시고 안녕히. (서울
종로구 관판동 65 이 원형)

△좋은 말씀입니다만, 여러 가
지 사정으로 말씀대로 실행할 수
는 없습니다. 몸조심 하시고 열심
이 공부하여 올에는 꼭 상급학교
에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기자)

▲아름 여러 선생님 새 해 몸 건
강히 안녕하신지 궁금합니다. 저
는 이번에 처음 애독자가 되었습
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
는데, 그것은 상타기 문제를 많
이 실려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럼
안녕히. (서울 광희 국민고 6년
김 학만)

△이후부터 되도록 많이 실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만들고 나서

어수선하던 책은 해를 보내고
희망에 가득 찬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 어린이 동무들! 얼마나 즐
겁습니까? 그리고 모두들 안녕
하십니까? 굳은 결심, 새로운
계획, 그리고 원대한 포부(抱負)
를 가슴 그득 안고 새해를 맞이
한 여러 분에게, 여러 분의 동무
"소학생" 은 영원한 축복의 인사
를 올립니다. 사람으로써 어찌 오
르는 세월과 가는 시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분은 이
때를 놓치지 말고, 몸도 작년보다
더 튼튼하게 공부도 정성껏 더
열심으로 하여, 남에게 뒤지지 않
게 이나 그보다도 세계 모든 나
른 나라 어린이들한테 지지 않도
록 하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우리 나라 역사를 만들
어린이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소학생" 또 보시는바와 같이 작
년보다 더 씩씩하고 명랑해졌고,
또 8페이지나 는 것을 자랑하
며, 이만큼 "소학생" 은 크게 키
워준 여러 동무들과, 밤낮을 가
리지 않으시고 글을 써 주시는
선생님들에게 무한한 감사의 뜻
을 표하며, 이 후로 더욱 더 귀
여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

4282年 1月 1日 發行

소 학생 • 값 100 원

1·2월치 ★ 제 64호

發行人 尹石重

發行所 兒 協

4280年 9月 30日 日曆 第246號

서울 鐘路 215 永保樓內
電話【光】 3370番·3492番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鐘路 2街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0年 9月 31日 日曆 第14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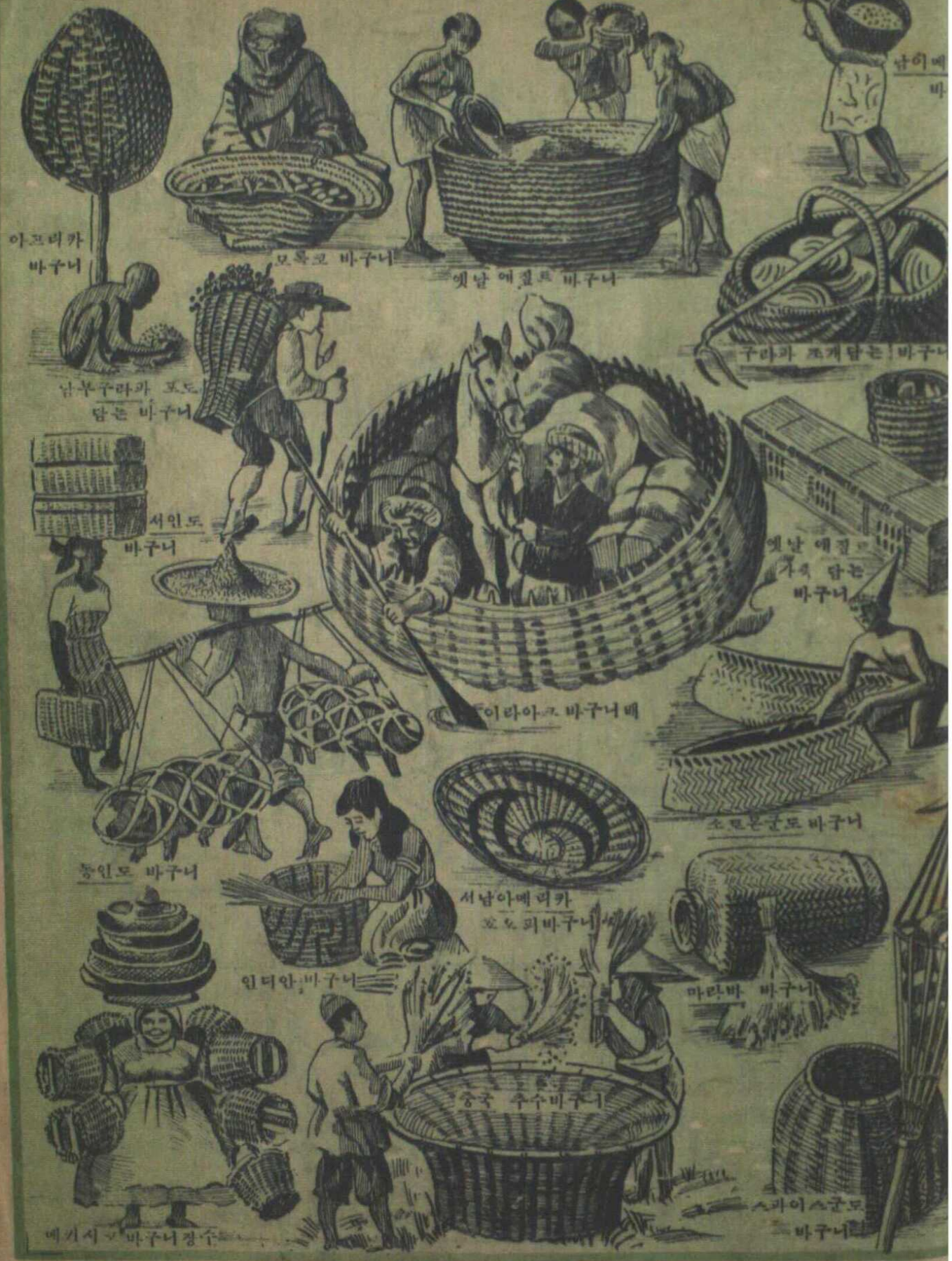


☆아 열심 간식
 섹섹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서로서로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것은 소과 박정환선생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당
 재말씀입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소과 선생의 이야기!
 소과동화독본·제5권
황금거위
 국판76페이지·책값 140원

장편 역사소설
이순신장군
 박태원선생 저술·김기창선생 그림
 조판이 나온지 며칠만에 절판되어 7-10시만 책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300원권 원시하신 우리민족의
 영웅의 거룩한 항쟁을 그려어낸 역사소설!
 국판114페이지, 책값 220원
 ☆아 열 발 함☆

그림 백과사전 ⑦

세계 각국 바구니
(설명 23 페이지에)



108